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慶南高中會報

발행·편집인 이종휘
편집주간 최재혁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8(부평동4가)
경남중·고 총동창회관 5층
Tel.(051)253-7788 Fax.(051)255-7787
편집디자인인쇄 인쇄마당 Tel.(051)464-6626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53호 - 2024년 6월 15일 발행

동창회장기 제26회 골프대회

16회부터 72회까지 어울린 즐거움의 한마당
완벽한 준비와 푸짐한 선물로 동창사랑 만끽

총동창회는 지난 5월 27일(월) 해운대비치CC에서 동창회장기 제26회 용마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날 비소식으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맑고 쾌청하여 라운딩하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낮 12시 10분 참석자들이 클럽하우스 앞 잔디밭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1번홀로 이동하여 참가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송규정(16회) 총동창회 상임고문, 유재진(22회) 모교 야구후원회장, 박종찬(25회) 덕경회 회장, 김대욱(29회) 총동창회 고문이 티박스에 나란히 올라서서 일제히 시타를 했다.



시타 후 32개 팀 131명의 선수가 18개 홀로 나뉘어 샷건 방식으로 낮 12시 30분 동시 티업하였다. 오후 6시경 경기가 마무리되고

클럽하우스 3층 대연회장에서 만찬과 함께 6시 30분에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타계한 동문

에 대한 묵념, 참석자 소개, 대회사, 축사, 건배 제의, 잔조 내역 소개, 시상,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바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하였다. 특히 최고선임으로 참석한 송 상임고문과 행사 때마다 큰 지원을 해준 유 모교 야구후원회장 등 고문단에 감사하였다.

올해 첫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늘집 비용을 총동창회가 톡톡게 부담하였다면서 즐거운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을 기원하였다. 총동창회에 많은

(기사 2면 넘김)

모교 개교 82주년 기념식

자율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학교 신뢰와 존경심이 넘쳐나는 학교



모교 개교 82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30일(화)과 5월 2일(목)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각 개최되었다.

경남중 박순진, 경남고 백영선 교장은 각 기념사에서 100년의 모교 역사를 생각하는 재학생들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자율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학교, 재학생들과 교직원 간 신뢰와 존경이 넘쳐나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하였다.

허부남(37회)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재학시절에는 잘 모르는데 학

교를 졸업하고 보면 사회 전반에 차지하는 모교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경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살아보면 출세를 위해 공부만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관심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일상을 즐겨달라고 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은 시대를 잘 타고났거나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의 이면에는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끊임 없는 노력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조사하는 능력, 추리 혹은 추론하는 능력, 지구력이나 인내력을 키우는 능력,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가설을 세워보는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닦을 수가 있다면서, 이렇게 경험으로 체득한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실에서 스스로 불가능하다거나 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은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성공한 사

람들은 그것이 진실임을 잘 알고 있다며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윈스턴 처칠의 'Never, Never, Never give up'이라는 명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범수(29회) 재경동창회장은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으로 시작되는 '주희(朱熹)의 '우성(偶成, 우연히 짓다)'이란 시를 언급하면서 배움의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문과정에서 답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 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이 정리되도록 매일 같이 일기를 쓸 것도 당부하였다.

각 기념식에서 총동창회는 재학생들에게 개교기념 선물을 전달하였고, 장학금도 주었다.



골프대회



<기사 1면 받음>

관심과 참여도 부탁하였다.

박 덕경회 회장은 축사에서 동문 사회에서 나뉠 마당발을 자처하는데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 중 20% 정도가 잘 모르는 동문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동문이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동창회가 그만큼 더 발전하리라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어 총동창회와 지구동창회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매년 열리는 용마골프대회는 31~35개 기수 150명 안팎이 만나는 큰 행사로 다른 학교 동창회에서는 보기 드문 행사라며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모교 동창회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동창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3가지 축으로 용마골프회, 야구후원회, 덕경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중이라면 동창회 밴드에 가입하여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하였다.

유 모교 야구후원회장은 용마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과 대회를 성공시킨 이 총동창회장의 탁월한 지도력에도 감사했다. 모교가 과거 야구 명문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야구후원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송 상임고문은 건배사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한 집행부에 감사했고 전임 회장들의 참여로 자리가 풍성해 보인다고도 했다. 또 대부분 사람은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살면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건강해진다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은 82세에 모터사이클을 10년째 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정적으로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채우자!!” “열정을~”

이어 현금 및 물품 협찬 소개와 대회 성적에 따른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시상은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 단체전은 기별 참가자 중 상위 성적 3명의 타수를 합산하여 시상하고 개인전은 신페리오방식으로 계산된 점수에 따라 시상하였다. 단체전에서 25회가 합산 231타로 우승을, 44회가 238타로 준우승을, 38회가 247타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12명과 11명이 참가한 38회와 44회가 최다참가상 1, 2위를 각각 수상하였다. 개인전에서는 38회 이전까지 기수를 장년부 A조, 39회 이후를 청년부 B조로 나뉘 시상하였다. A조에서는 유재진 동문이 72타로 메달리스트를 수상하였고, 이창(36회) 동문이 72타 신페리오점수 70.8점으로 우승에, 박광용(25회) 동문이 73타 71.8점으로 준우승에, 안재홍(28회) 동문이 78타 72점으로 3위에 각각 올랐다. 공종열(31회) 동문이 드라이버 240m를 쳐 롱기스트상을, 박정민(38회) 동문이 샷홀에서 홀에 1.2m를 붙여 니어리스트상을 각 수상하였다. B조에서는 72타를 친 김대훈(43회) 동문이 메달리스트를 수상했고, 박상순(43회) 동문이 80타 69.2점으로 우승에, 김을성(44회) 동문이 86타 70.4점으로 준우승에, 이희철(54회) 동문이 91타 70.6점으로 3위에 각각 올랐다. 권유찬(48회) 동문이 드라이버 240m를 쳐 롱기스트상을, 김상수(45회)

동문이 샷홀에서 홀에 4m를 붙여 니어리스트상을 각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골프 캐디백과 골프공, 골프채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시상 후에는 국민MC 김경진(44회) 동문의 사회로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행운권 추첨 후에는 대회에 출전한 6명의 용마코러스팀의 선창으로 교가 제창을 하고 8시 30분쯤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용마골프대회 참석자 명단

송규정(16회) 유재진(22회) 곽두희 노상우 이 수 황규선(이상 24회) 김종현 김진우 박광용 박종찬 송영근 안영복 안희석(이상 25회) 조만석(26회) 조상익(26회 조만석) 박종기 안재홍(이상 28회) 김대욱 박동혁 박봉구(이상 29회) 김재철 서강태 이명건 인준승 최석렬(이상 30회) 공종열 김종규 김판덕 박경수 박종호(이상 31회) 백영태 변문성 예동해 이종휘 정용운 최춘호 팽현준(이상 32회) 김재도 김종욱 박태중 송준헌 윤상현 이동근 최웅남(이상 33회) 김재성 서석권 오문세 이원우(이상 35회) 이 창 최재혁(이상 36회) 김재춘 김치연 전인수(이상 37회) 곽동열 구동주 김경곤 문귀상 박이현 박정민 심재민 오희진 이동근 이종일 장철호 한민득(이상 38회) 김규웅 김윤홍 김종엽 서은식 장유식 하순호(이상 39회) 노인철 박근성 배병훈 안성호 장갑구 장명재 최치연 한수열(이상 40회) 김동원 전삼록 최태용(영준) 안덕용(이상 41회) 김현오(42회) 김기봉 김대영 김대훈 박상순(이상 43회) 강경호 김을성 김 황 문형준 심재홍 안병규 윤상헌 임정훈 정의석 탁정환 황재훈(이상 44회) 김상수 김종현

이동희 조태성(이상 45회) 이재광 최원석(이상 46회) 권유찬 김현구(이상 48회) 김석훈 손남익(이상 50회) 김동언 임용관 정유석(이상 51회) 김민철 김지운 박재용 백선명 이정민 정상중 최문성 한중현 허근영(이상 52회) 남준현 이동준 이희철(이상 54회) 강문성 이동규 장 민 한재호(이상 55회) 강동현(56회) 송재혁(72회) 윤재현(79회)父

◇찬조 내역

이종휘(32회) 300만원, 송규정(16회) 100만원, 유재진(22회) 벤츠골프백 10개, 골프우산 200개, 곽두희 30만원, 노상우 30만원, 박극제(이상 24회) 고등어선물세트 10박스, 김익수 100만원, 박종찬(이상 25회) 200만원, 냉장고 300L 1대, 90L 3대, 김대욱(29회) 100만원, 최석렬(30회) 건강검진권 10만원 10매, 박경수(31회) 50만원, 이성훈(32회) 핑드라이머 1점 (100만원 상당), 박명진(33회) 리조트숙박권 200만원 상당 1매, 80만원 상당 1매, 이진호(34회) 현대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3매, 오문세(35회) 30만원, 허부남(37회) 100만원, 문귀상 20만원, 심재민 20만원, 한민득(이상 38회) 50만원, 캔맥주 10박스(40만원 상당), 하순호(39회) 신세계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3매, 한수열(40회) 삼성기프트카드 10만원권 2매, 김영철 10만원, 최태용(영준, 이상 41회) 50만원, 전신MRI(암검진) 우대권, 안병규 EDEN797글램핑1박 이용권 2매(60만원 상당), 임정훈(이상 44회) 30만원, 김상수 50만원, 조태성 (이상 45회) 건어물선물세트 5개, 정유석(51회) 메디슬리핑 1세트(50만원 상당), 김민철(52회) 52만원, 한재호(55회) 소주 3박스, 공삼이회(32회) 100만원, 경친회(38회) 20만원, 44회 동기회 100만원, 경야회 50만원, 남부산지구 30만원, 덕경회 100만원, 덕형리그 50만원, 동래금정지구 30만원, 싱글회 100만원, 용마코러스 30만원, 재경동창회 간이음주축정기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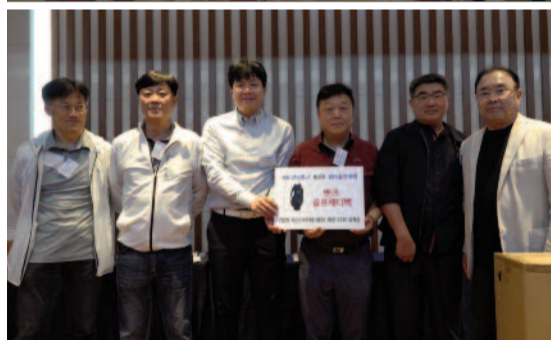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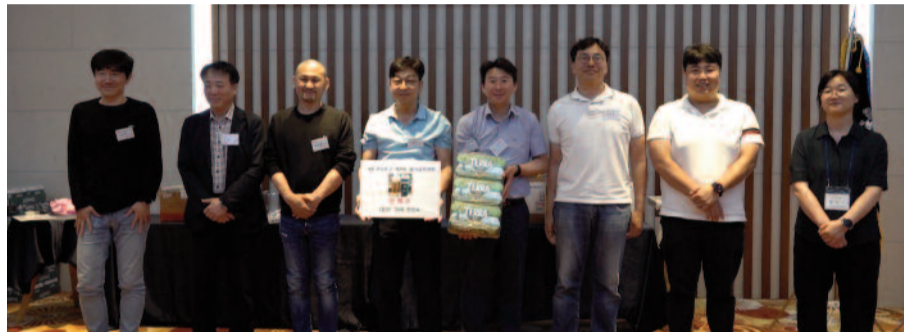


골프대회



◇행운권 당첨명단 :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숙박권(200만원 상당) 1매 - 송영근(25회) △핑 드라이버(100만원 상당) - 김대영(43회)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숙박권(80만원 상당) 1매 - 이동근(33회) △메디슬리핑 1세트(50만원 상당) - 이 수(24회) △냉장고 300L 1대 - 곽두희(24회) △전신MRI(암검진)우대권 - 송중현(33회) △EDEN797 글램핑 1박 이용권(30만원) 2매 - 한민득(38회) 이재광(46회) △벤츠 골프캐디백 5개 - 박봉구(29회) 문귀상(38회) 김규웅(39회) 안덕용(41회) 장 민(55회) △냉장고 90L 3대 - 조상익(26회 조만석 아들) 백영태 평현준(이상 32회) △삼성기프트카드 10만원 2매 - 장유식(39회) 강경호(44회) △신세계상품권 10만원 3매 - 송규정(16회) 김중현

(25회) 권유찬(48회) △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원 3매 - 황규선(24회) 이동근(38회) 김석훈(50회) △제2항운병원 건강검진권 10만원 10매 - 노상우(24회) 박종찬(25회) 서강태(30회) 예동해(32회) 이 창(36회) 김치연(37회) 장철호(38회) 하순호(39회) 박재용(52회) 송재혁(72회) △고등어 선물세트 10박스 - 조만석(26회) 김대욱(29회) 정용운(32회) 배병훈(40회) 전삼록(41회) 김상수 김중현 조태성(이상 45회) 김지운(52회) 강문성(55회) △건어물 선물세트 5개 - 최춘호(32회) 김종엽(39회) 장명재(40회) 황재훈(44회) 한재호(55회) △캔맥주 8박스 - 오문세(35회) 임정훈(44회) 이동희(45회) 김현구(48회) 정상중 한중현(이상 52회) 이동규(55회) 송은애(사무국)



제26회 용마골프대회 시상

1. 단체전 (기별 참가자 중 BEST SCORE 3명 합산하여 순위 결정)

순위	기수	성명	합산스코어	시상내용		비고
				시상	상품	
우승	25	박광용(73) 송영근(78) 김진우(80)	231	우승기	골프캐디백, 골프공 3BOX	타이틀리스트
준우승	44	정의석(79) 안병규(79) 윤상훈(80)	238	준우승기	유틸리티, 골프공 3BOX	타이틀리스트
3위	38	박이현(81) 심재민(83) 이종일(83)	247	3위기	웨지, 골프공 3BOX	타이틀리스트
최다참가상1위	38	12명			골프공 4BOX	파라볼라
최다참가상2위	44	11명			골프공 3BOX	파라볼라

2. 개인전

A조(1~38회)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비고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	
메달리스트	22	유재진	72		트로피	골프캐디백	
우승	36	이 창	72	70.8	트로피	골프캐디백	
준우승	25	박광용	73	71.8	트로피	유틸리티	
3위	28	안재홍	78	72	트로피	웨지	
롱기스트	31	공종열		240m	트로피	골프공 2BOX	파라볼라
니어리스트	38	박정민		1.2m	트로피	골프공 2BOX	파라볼라
행운상	38	오희진		101		맥주 1BOX	

B조(39회 이후)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비고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	
메달리스트	43	김대훈	72		트로피	골프캐디백	
우승	43	박상순	80	69.2	트로피	골프캐디백	
준우승	44	김을성	86	70.4	트로피	유틸리티	
3위	54	이희철	91	70.6	트로피	웨지	
롱기스트	48	권유찬		240m	트로피	골프공 2BOX	파라볼라
니어리스트	45	김상수		4m	트로피	골프공 2BOX	파라볼라
행운상	52	허근영	126			맥주 1BOX	

2024년도 고문,자문,집행위부회장 회의

총동창회와 모교,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총동창회는 지난 4월 24일(수) 저녁 7시 서면 ‘월강초밥’에서 고문, 자문, 집행위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총동창회 2024년도 사업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많은 사업을 경황없이 치르느라 총동창회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고문, 자문, 집행위부회장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외형보다는 동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와 관련하여 조경태(40회) 동문이 유일하게 당선되었다며 정계에 과거와 현저히 다르게 동문의

숫자가 미미한 상황에 아쉬움도 토로했다. 또 낙선한 서병수(25회) 동문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제26회 총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 개최의 건이 논의되었다. 5월 27일(월) 해운대비치 골프&리조트에서 45개 조가 낮 12시 동시 티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운대비치 골프&리조트는 박명진(33회) 동문이 대표로 있는 골프장이다. 참가비는 개인당 4만원이고 총동창회에서 그린피 일부와 카트비 합계 45,0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어 자율형 공립고 2.0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5월 초 모교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면 총동창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 1억원(재경동창회에서 5천만원을 마련해 주기로 함)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운영하는 동문 위주로 모금 활

동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박종기(28회) 동문에 의해 현재 총동창회에 가동 중인 경남고 정원시설개선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허부남(37회) 동문이 지난 4월 중순에 2024년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공지되었다. 기타 토의에서 박종찬(25회) 고문은 총동창회 집행부에 동창회보 구독료 납입 실적에 대한 독려를 주문하였다.

회의는 저녁 9시가 넘어서 기념 촬영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 ◇참석자 : 이종휘(32회) 강부덕(20회) 곽두희 노상우(이상 24회) 박종찬 김중현(이상 25회) 김택영 이영학(이상 26회) 박종기(28회) 박봉구(29회) 김중규(31회) 예동해(32회) 정운성(35회) 양호진 이창 최재혁(이상 36회) 허부남(37회) 문귀상 김경곤(이상 38회) 강병규(43회)

용마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장학금 지급 규모 감소, 동문들의 관심 절박



육동훈(25회) 상임이사, 류명석(31회) 감사, 예동해(32회) 간사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이 이사장은 최근에 기부금 및 동창회관 임대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충분한 장학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보이며, 동문들의 장학금 후원 규모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기대한다고 하였다.

(재단)용마장학회는 2024학년도 학력향상 격려금(장학금) 지급 기준안을 새로 만들고 위 기준에 따라 경남고에 2,280만원, 경남중에 1,020만원의 장학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날 이병찬(23회) 이사장을 비롯

◇ 경남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내역

구분	총인원				1회 지급 금액	총액
	인원	대상	지급횟수	인원 계		
1등	1명	각 학년별	4회	12명	40만원	480만원
2, 3등	2명	각 학년별	4회	24명	30만원	720만원
4, 5등	2명	각 학년별	4회	24명	20만원	480만원
6~8등	3명	각 학년별	4회	36명	10만원	360만원
9, 10등(진보상)	2명	각 학년별	4회	24명	10만원	240만원
계	10명	-	4회	120명	-	2,280만원

- ◇ 장학생 선정 기준
1. 횡수 선정 기준 고사
1회 1학기 중간고사 + 3월 학력평가, 2회 1학기 기말고사 + 6월 학력평가, 3회 2학기 중간고사 + 9월 학력평가, 4회 2학기 기말고사 + 10월 학력평가 (3학년은 대학수학능력시험)
 2. 성적우수자 선정 기준

중간 또는 기말고사 석차(50%)	+	교육청(평가원) 학력평가 석차(50%)
지필평가 과목별 석차 백분위의 평균		국,수,영 실체점 교내 석차 백분위의 평균

- 기준고사 일부 결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적 산출이 되지 않은 경우 학년협의회에서 성적우수자 선정 대상 포함 여부 결정 (미용시 과목 인정점수 부여 방식 등 학년협의 내용에 따라 성적 산출 진행함)
 3. 성적향상자(진보상)의 선정 기준

석차 향상등수 순위 석차(50%) + 석차 향상률 순위 석차(50%)

단, 정기고사 결시, 직전 회차 결시 등으로 정상적인 성적 산출 비교가 되지 않은 경우 성적향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4. 학력우수자 및 향상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장학금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5.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학력평가 영어 등급, 2순위: 학력평가 국어 표준점수, 3순위: 지필평가 우수자, 4순위: 학년협의회 추천자
 6. 당해연도 징계처분 학생 및 관련 사안으로 학폭 또는 선도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경남중학교 장학금 지급계획

구분	총인원				1회 지급 금액	총액
	인원	대상	지급횟수	인원 계		
성적우수	5명	각 학년별	2회	30명	20만원	600만원
모범학생	3명	각 학년별	1회	9명	20만원	180만원
생활지원	3명	각 학년별	1회	9명	20만원	180만원
학교장 선정	3명	각 학년별	1회	3명	20만원	60만원
계	-	-	-	51명	-	1,020만원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된 자갈치 지계꾼 아들 조경태

22대 국회 6선의 최다선 의원이자 경남고 동문중 유일한 국회의원인 조경태(40회) 동문을 지난 5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당선 소감을 들어보았다.

(대담자 최재혁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정진 KN1942방송국 제작국장)



- 1 경고인으로 유일한 국회의원이라 영광스런 마음보다 총동창회 국회의원이 1명뿐인 사실이 아쉽다.
- 2 부친이 자갈치 지계꾼으로 사셨고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대변하고자 정치에 입문하였다.
- 3 6선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였기에 그동안 아무런 스캔들이 없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소임을 다할 것이다.
- 4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구를 잘 관리하여 김영삼 선배님이 이룬 9선을 넘어서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 5 과거에 어떤 선배들을 배출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동문들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지를 통렬히 고민하기를 바란다.
- 6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모교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교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든지 모교와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다.
- 7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화제의 동문 인터뷰

문 :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6선의 최다선의원이자 무엇보다 경남고 유일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당선소감은?

조경태 : 동문들의 성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성원에 감사하며 당선자의 모든 영광을 동문님들에게 돌리고자 한다.

문 : 학창시절에 당선자는 어떤 학생이었으며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조경태 : 공부를 잘하는 두드러진 모범학생은 아니었으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학생이었던 것 같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수업에서 빠지는 일탈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자갈치에서 지게꾼으로 일하신 부친이 힘들게 벌어서 공부를 시키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탈의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구포에 소재한 모 대학에 시간 강사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였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당하는 고충의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힘없는 학생의 신분이라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경험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동반자로서 사회를 개조해 보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문 : 학창시절로 되돌아 간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조경태 : 친구들과 어울려 추억이 될만한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

문 : 상대당에서 전략 공천을 하고, 설상가상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시(市) 구(區)의원들이 경선 상대방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승리한 결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는지요?

조경태 : 의정활동이 바빠도 매주 지역에 내려와 지역구 관리를 성실히 하였다. 경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지만 변함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 민심은 언제나 진심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 : 선거과정에서 동문들의 도움이 충분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조경태 : 동문들의 도움이 충분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많은 동문들이 있었기에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는 것! 모교를 졸업한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도움을 준 동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문 : 모교 출신의 국회의원들 숫자가 과거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였는데 22대 국회에 단 1명밖에 없다는 사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요? 더 나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동문사회에 어떤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는지요?

조경태 :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만 다른 학교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 있다. 오늘의 결과는 모교가 과거에 어떤 분들을 배출했다고 자랑만 해왔을 뿐 정작 그러한 영광이 지속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문들이 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나부터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 동문이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요구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 :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구상하는 것이 있는지요?

조경태 : 지금 국회는 여야간 불신으로 반대의 극한 대립만이 난무하고 있다. 화합할 수 있는 중재의 역할이 시급하다. 최다선의원으로서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무게감이 있는 합리적인 언행으로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보려고 한다. 초선의원들이 국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겠다.

문 : 현재 모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는 등 재도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모

교의 발전을 위해 당선인이 할 역할이 있는지요?

조경태 :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와 소통이 부족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모교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서로 소통이 부족하여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모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바란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문 : 22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그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동문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지요?

조경태 : 김영삼(3회) 선배님은 9선을 하셨다. 김영삼 선배님과 비교한다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김영삼 선배님의 배경과 비교할 수 없는 후속자 출신으로 6선에 올랐다.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셈이다. 6선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50대의 나이는 아직 젊다고 본다. 성실하게 소임을 다하여 김영삼 선배님이 이룩한 것 이상의 결과를 이루고 싶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문 : 본 인터뷰를 통하여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경태 :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 동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전반기 지구동창회장 연합회

지구동창회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것 결의



총동창회 산하 부산시내 8개 지구동창회 회장들은 지난 4월 30일(화) 저녁 6시 서면 「제일횃집」에 모여 금년도 첫 연합회를 가졌다. 이날은 신임 지구동창회장 상견례를 겸했다.

23년 12월 강서지구 김재성(35회) 회장, 금년 1월에는 동래금정지구 박정민(38회) 회장, 3월은 사하지구 문귀상(38회) 회장, 4월에 부산진·연제지구 백운창(34회)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기장지구 회장단이 연락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

만, 신임 회장 4명의 새로운 전진에 모두 축하를 보냈다. 회의는 지구회장 연합회 사무국장인 북부산지구 박동열 회장(35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종기(28회) 연합회장은 준비해온 자료에 따라 지구동창회 운영기준, 총회 및 이취임식 표준 식순과 경조사 복장, 찬조비용 등 지구동창회가 품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브리핑했고 “젊은 후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지구동창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취임한 지구회장 인사말에서, 백운창 회장은 “인원이 적어도 동문들이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으며, 강서지구 김재성 회장은 “5월 12일 남부산지구와의 야구시합을 필두로 지구간의 이벤트로 화합의 장을 자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래금정지구 박정민 회장은 “가을에 족구대회를 열어 내부결속의 자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고, 사하지구 문귀상 회장은 “후배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두 달에 한 번은 정기모임을 꼭 가지겠다”고 열정을 보여주었다.

기타 토의로서 ▲KN1942방송국 회원 증가 ▲야구후원회 가입 ▲동창회보 구독료 4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가일층 독려하자고 다짐했다. 예전에 해운대와 남부산지구가 요트행사를 공동 추진했던

것처럼 지구간의 야구, 족구, 산행 등 연합 이벤트를 가지자는 의견도 채택됐다.

맛있는 생선회로 환담을 나누는 지 2시간, 저녁 8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1차가 아쉬워서 2차 맥줏집으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해운대지구 김태호 회장이 양주 한 병을 쾌척하여 폭탄주를 돌리는 등 유쾌한 뒤풀이가 됐다. 박종기 연합회장은 금년말 망년회가 지구별로 겹치지 않도록 서로 의논해서 일정을 잡아 주기를 당부했다.

◇참석자 : 중부산지구 박종기(28회) 부산진·연제지구 백운창(34회) 북부산지구 박동열, 강서지구 김재성(이상 35회) 해운대지구 김태호, 동래금정지구 박정민, 사하지구 문귀상(이상 38회) 남부산지구 한수열(40회)

중부산지구, 만나는 즐거움!



중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 5월 21일(화) 오후 7시, 27명의 회원이 영도구청 맞은편 「33한 돼지」(41회 성찬기 운영)에서 5월 월례회를 가졌다.

박종기(28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들의 활발한 참석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차기 집행부를 위한 견고한 재정 확충을 위해 연회비 납부를 재차 독려했다. 임무홍(25회) 고문은 건배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격려함과 동시에 본회 발전을 기원하는 특유의 건배 제의를 했다.

천장호(31회, 동대신시장에서 마트 경영) 회원도 전달에 이어 얼굴을 보였고, 조선기자재 사업을 하는 김영철(41회) 동문은 최태용(41

회, 해동병원 정형외과 과장) 부회장의 인도로 첫 참석과 동시에 중부산 밴드에 가입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허재원(43회, 울산 동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동문은 저녁 교통체증을 뚫고 멀리 울산에서 참석했으며, 김수용(44회) 동문도 오랜만에 참석해서 44회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앞서 중부산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16일(화) 오후 6시 30분, 부산 데파트 뒤편 「ZOOM樂 (53회 최동환 동문 경영)」에서 4월 월례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회비 납부 100명, 1천만원을 꼭 달성하자”라며 “이 자금은 다음 집행부가 배짱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

록”이라며 연회비 납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4개구에 거주하는 동문을 발굴해서 다음 모임에 각각 한 명씩 같이 올 것”을 독려했다. 이날 모임에 처음 참석한 천장호 동문이 앞으로 활발히 참석하겠다고 다짐했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반년 만에 복귀한 서동범(32회) 동문도 반가움을 더했다. 울산에서 참석한 허재원(43회) 동문도 자신을 소개하며 주변의 장애우에게 관심 가져주길 당부했다.

줌약 대표인 최 동문과 줌약 2층에서 밤에는 「팝송인광복」을 경영하고 낮에는 타일 시공 등 투잡을 가진 김효종(53회) 동문도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희동(59회, 「든든한 외식 창업파트너」 대표) 동문, 전명재(67회, 「재현조경개발」 실장) 동문이 각각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했고 더욱 열성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박 회장은 ‘깜짝 선물 증정’ 시간에 채현철(50회) 동문에게 고밀도 천으로 제작된 당구 큐가방을 선물했으며, 매달 이런 깜짝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

러 최태용 부회장이 약 75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는 영도 해동병원 ‘전신 MRI 암검진 우대권’을 찬조하자, 박 회장은 최선임자인 임고문과 처음 나온 천 동문에게 각각 전달했다. 또 임고문은 자신이 받은 검진권을 즉시 이정삼(40회) 이사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였다. 이어 최동환 동문이 고가 전통주(25° 문배주) 7병을 찬조했는데 4병은 각 테이블에 한 병씩 배치하여 나누어 마셨고, “25°는 25회에게!”라면서 임고문께 1병, 풋풋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이희동·전명재 동문에게 각 1병씩 증정됐다.

인위적으로 자리를 파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다음 날이 평일이라 근무해야 하는 회원들을 위해 저녁 8시 50분쯤 기념 촬영을 끝으로 본행사를 마쳤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은 12명의 회원은 박회장의 인솔 아래 줌약 2층의 「팝송인광복」으로 자리를 옮겨 정담을 나누다가 10시 50분경 다음 월례회를 기약하며 전원 귀가하였다.

부산진·연제지구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알 깨고, 푸른 하늘로 날갯짓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지난 4월 17일(수) 저녁 서면 이리스뷔페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뷔페식사를 먼저하고 참석자 소개, 회장 이임사 및 취임사, 회기 전달, 격려사, 격려금 전달, 건배사,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윤조(33회) 회장은 이임사에서 5년 동안 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회원들에게 감사하였고,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준 박종찬(25회) 고문과 김법영(33회) 동기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덕경회 회원이자 34회 동기회장인 백운창 신임 회장이 동창회를 보다 활

기차게 이끌 것으로 확신하였다. 신임 회장을 도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동창회를 잘 이끌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 관심과 격려, 동참을 부탁하였다.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이윤조 회장을



중심으로 그간 조직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노력에 비해 다소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인하여 이윤조 회장의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하고 자신감과 추진력이 넘쳐나는 백운창 동문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만

큼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모교에서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학교공사와 더불어 정원시설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모교가 리모델링되고 있는 사정, 이에 더하여 자율형 공립고 2.0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으로 모교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 하였다.

이날 행사는 준비된 좌석에 비해

참석인원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백운창 신임 회장의 활기찬 입담에 시종 일관 화기에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 : △내빈 - 이종휘 총동창회장, 예동해(이상 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 회장,

박동열 북부산지구 회장, 전상건 용마코스지휘자(이상 35회),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문귀상 사하지구 회장(이상 38회), 김종엽(39회) 동래금정지구 사무국장, 조청래(45회) 남부산지구 사무국장, 정유석(51회) K-청마회 회장, 백운창 신임 회장 지인 3명 △회원 (존칭 생략) - 최태열(28회) 김법영 김상욱 노경호 이동근 이윤조 주기훈(이상 33회) 김중근 김현용 박철웅 백운창 오주흔 이용희(이상 34회) 최상도(36회) 광동열 배석문 신동훈(이상 38회) 김병기 백기현 윤원욱(이상 39회) 안현준(51회) 김성수(59회)

◇찬조 :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30만원+상품권 20만원, 이동근(33회) 10만원, 총동창회 30만원, 남부산지구 20만원, 동래금정지구 20만원, 북부산지구 2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중부산지구 20만원, 해운대지구 10만원, 용마코스 10만원, 백운창(34회) 총회 기념 답례품 세트, 백기현(39회) 초량본가 어묵선물세트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

신임 집행부 구성... 재도약의 길 모색하는 자리 마련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신임 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지구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20일(월) 저녁 서면 '천일횃집'에서 그동안 지구동창회에 많은 후원을 해준 오익희(21회) 동문을 예방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 모임을 주선한 이윤조(33회) 전임 회장은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지구동창회의 명맥을 유지해 오는데 오 동문의 관심과 후원이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하여 오 동문은 오

히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회장의 수고에 고마움과 격려를 표시하고 신임회장을 맡아준 백운창(34회) 동문을 비롯한 집행부의 선전을 축원하였다. 오 동문은 이 전임회장의 부탁으로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의 명예고문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즉석에서 후원금 50만원도 출연해 주었다. 오 동문은 이날 모임장소에 그냥 오기가 섭섭해 양주 한 병도 가져왔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술잔이 여러 차례 오고가면서 이 전임회장은 지난 5년간 힘들었던 시간들이 눈녹듯 좋은 추억으로 녹아났고 다른 참석자들의 마음도 희망으로 넘쳐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참석자 : 오익희(21회) 이윤조(33회) 백운창(34회) 김병기(39회)

해운대지구 2024년 첫 정기모임 박상호(26회) 동문 골든벨을 울려



해운대지구동창회는 4월 5일(금) 저녁 7시 해운대 블루키친 마리나센터 4층에서 2024년 첫 정기모임을 가졌다.

선거기간과 겹쳐서 그런지 예상보다 참석율이 저조했지만 그래도 알찬 멤버 48명이 모였다.

오랜만에 김재철(30회) 동문이 부동반으로 참석했고, 26회 동문들이 5명으로 최다 참석하였으며 17회 동문들도 3명이나 참석하였다.

동문들의 화기에애한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의 식대는 26회 신태양건설 박상호 회장님께서 모두 계산하십니다!”는 사회자의 우렁찬 고함소리에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었다. 해운대지구동창회 최초로 골든벨이 울렸다.

때마침 우연히 들린 주진우 국회의원(해운대 갑) 후보도 기라성 같은 우리 동문들의 힘을 보고 해운대 최고의 모임인 것 같이라며 칭찬하였다.

◇참석자 : 배대결 윤기갑(이상 13회) 김화옥(14회) 서정승 신정아 이건우(이상 17회) 김인구(24회) 박광용 박흥기 송정규(이상 25회) 강영녕 김경곤 김 형 박상호 조만석(이상 26회) 이영희(28회) 김대욱 박동혁 박봉구(이상 29회) 김재철 부부(30회) 김중근 박철웅(이상 34회) 김경찬 윤경준 정윤희(이상 36회) 김태호 권두성 문귀상(이상 38회) 윤원욱 이준영(이상 39회) 김종길(40회) 김종식 정현화(동반3인)(이상 43회) 전상혁(48회) 이충현(49회) 오유준(50회) 고강인(54회) 남지원 김효주 주진우 외 4인

◇찬조 : 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 20만원, 송정규(이상 25회) 20만원, 김경곤(26회) 10만원, 사하지구 20만원, 중부산지구 10만원, 용건회 10만원, 권두성(38회) 타올 60장

강서지구 VS 남부산지구 제1회 야구 정기전 개최

야구경기를 통하여 지구동창회간 우의 다질 수 있는 계기 마련



강서지구동창회와 남부산지구동창회가 각자의 지구동창회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지구동창회간 야구 정기전이 5월 18일(토) 오전 7시 30분 신항만BPA야구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시작 직전 시구는 김경곤(3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시타는 김재성(35회) 강서지구 회장이 해주었다.

재미있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 결과는 10대 9로 남부산지구가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였다. 경기를 마치고 강서지구 58회 이승근 동문이 운영하는 꽃돼지삼형제 명지점으로 이동하여 뒤풀이를 가졌다.

이날 경기의 수훈선수에게는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찬조한 10만원 상품권 4장이 시상품으로 전달되었는데, 강서지구는 최고령 선수로 출전하여 좌중간 펜스를 맞추는 최장타로 2루타를 기록하는 노력장을 보여준 고용남(29회) 동문에게 우수선수상이, 더운 날씨에 투수, 포수를 겸임하며 크게 활약한 한 우재준(53회) 동문에게 최우수선수상이 돌아갔다. 남부산지구는 3타수 2안타 4타

점을 올린 안성호(40회) 동문이 우수선수상을, 선발투수로 나서 완투하여 팀을 승리로 이끈 감기환(47회) 동문이 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야구경기를 통하여 지구동창회간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계속하여 정기전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선수명단 : △강서지구 - 1번 45회 박진수(좌익수) 2번 54회 김성규(투수)

3번 54회 이동준(유격수) 4번 53회 우재준(포수) 5번 29회 고용남(3루수) 6번 37회 이찬명(중견수) 7번 32회 이환용(1루수) 8번 58회 이승근(우익수) 9번 54회 남준현(2루수) 감독 : 38회 이수관 △남부산지구 - 1번 52회 한중현(유격수) 2번 56회 이승민(우익수) 3번 40회 노인철(포수) 4번 40회 박기엽(3루) 5번 40회 안성호(1루) 6번 51회 정유석(2루) 7번 45회 조청래(중견수) 8번 41회 김신욱(좌익수) 9번 55회 황시우(지타) 감독대행 : 40회 한수열 투수 : 47회 감기환 대기 : 51회 박보순

◇찬조 :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4매, 박종기(28회) 중부산지구 회장 20만원,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 30만원

남부산지구 5월 정기모임

남부산지구만이 할 수 있는 행사로 자긍심 불러



남부산지구동창회는 5월 22일(수) 남구 용호동 소재 더블유상가 '진상' 고깃집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한수열(40회) 남부산지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18일(토) 강서지구와의 야구 시합 후일담을 전하며 그날의 수훈 선수(감기환, 정유

석, 조청래 등)들을 소개하였고 동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정기모임 당일까지 64명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며 목표로 한 80명 연회비 납부를 달성하여 재정을 튼튼하게 해 앞으로 있을 다양한 남부산지구 행사에 큰 보탬이 될거라 포부를 밝혔다. “남부산지구 회장배 골프대회”를 6월 13일(목) 골프존 감포CC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부산지구 해외

여행(일본 마쓰야마 9월 27일)의 대략적인 일정 등을 전달하였다. 이종철(16회) 동문은 지난 총선에서 도움을 준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고, 곽두희(24회) 동문은 남부산 발전을 기원한다는 격려사를, 박인평(29회) 동문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전기장인기술단을 운영하는 최웅남(33회) 동문의 건배제가 있었다. 교가제창과 단체촬영 후 2차는 더블유상가 몬트리 맥줏집에서, 3차는 자이상가 세연칼국수에서 모임을 이어갔다.

◇참석자 : 이종철(16회) 곽두희 임민호 이수(이상 24회) 김동진(25회) 임상규(28회) 박인평(29회) 김종만 최웅남 홍주성(이상 33회) 박용한(39회) 한수열(40회) 김동원 조용락(이상 41회) 김남표 박동식 안정일 정용중(이상 42회) 탁정환(44회) 조청래 최상배(이상 45회) 신정일(46회) 감기환 정민호(이상 47회) 김석훈(50회) 오성진 정유석(이상 51회) 정준섭(54회) 장지훈(55회) 김현운(58회) 김성수(59회)

◇찬조 : 김동진(25회) 10만원, 최웅남(33회) 2차식대, 오성진(51회) 3차식대

창원지역동창회 가족동반 야유회

고래의 지혜 빌려 동창회 활성화에 불 지피다



창원지역동창회(회장 30회 김해근, 김안과원장&여수시티파크CC 회장)는 지난 4월 21일(일) 울산의 대왕암공원, 장생포의 고래문화마을, 고래박물관으로 가족동반 야유회를 다녀왔다.

날씨가 잔뜩 흐리고 비까지 내리는 곳은 날씨여서 야외행사를 하기에는 다소 불편하였다. 그러나 역사성과 볼거리가 풍성한 지역이라 참석자들은 행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신라시대 삼국통일을 이룩했던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룡이 되어 대암밀에 잠겨있다는 전설이 있는 대왕암과 기암괴석들, 1만 5천그루의 해송과 바람이 스치면 거문고 소리를 낸다는 슬도의 바위들, 100년 된 울기등대를 둘러보고 장생포에 있는 고래문화마을로 이동하여 고래박물관을 관

람하였다. 김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동문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창원지역동창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 강인섭(18회) 부부, 김재근(19회) 부부, 김현기 부부, 하갑준(이상 21회) 부부, 최신철(25회) 부부, 김동욱(30회) 부부 외 1명, 함진복(19회) 강위수(20회) 심광섭(21회) 한원우 김호용(이상 26회) 정상국(29회) 김해근 조명제 임영수 오경태(이상 30회) 백호동 이환용 윤정욱(이상 32회)

공진우 강신종 류홍영(이상 33회) 조시형(34회) 박승준(40회) 조성욱(45회)

◇찬조 : 이경재(13회) 20만원, 강인섭(18회) 30만원, 김재근 30만원, 함진복(이상 19회) 10만원, 강위수(20회) 10만원, 심광섭 10만원, 하갑준(이상 21회) 10만원, 김우홍(22회) 30만원, 최신철(25회) 10만원, 한원우(26회) 30만원, 김중하(27회) 20만원, 김갑태 10만원, 정영주(이상 29회) 30만원, 윤정욱(32회) 10만원, 김해근(30회) 110만원(점심 식대)

경남중 · 고미래발전협의회 4월 정기모임

신규회원 확충, 다양한 행사로 총동창회 미래 책임지는 역량 키워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약칭 ‘경미회’ 회장 44회 안병규)는 4월 18일(목) 서면 더스타부페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초청 내빈없이 경미회 회원들만 모여 다소 차분하게 그리고 오롯이 분과를 중심으로 회원간의 교류를 위한 시간이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시행할 사업을 박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토의과정을 거쳐 5월 11일(토) 가족동반 야구관람(사직운동장, vs LG), 6월 15일(토) 족구대회(동래산성), 8월 24일(토)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장소 미정) 행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고,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 모임시 최다참가분과



에 안 회장이 사비로 30만원을 시 상하겠다고 공약하여 회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종찬(25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어 10만원권 상품권 4장으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여 회

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 상품권은 분과모임을 진행한 친목교류와 미래발전 분과와의 추억의 텐디뽀 게임으로 친목교류분과의 신정일, 권유찬 회원이, 미래발전 분과의 조태성, 이동규 회원이 차

지하였다.

2월 정기총회 때 6명의 신규회원 가입이 있었지만 3명의 신규회원(44회 임정훈, 48회 권유찬, 55회 한재호)이 추가로 가입추천되어 3월 20일 임원 전체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모두 가입이 확정된 바 있어 이날 가입소개인사가 있었다. 이전 집행부에서 넘겨받은 10만원 상품권 2장은 가장 막내인 55회 한재호 회원과 가장 반가운 기수인 48회 권유찬 신입회원에게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가 제창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4월 정기모임 공식행사는 잘 마무리 되어 해산하였고, 이후 각 분과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경미회 가족동반 야구관람

용마! 사직구장을 붉게 물들이다

경남중·고 미래발전협의회(약칭 ‘경미회’ 회장 44회 안병규)는 지난 5월 11일(토) 사직야구장을 찾아 ‘2024년 경미회 가족동반 야구관람’ 행사를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정기모임에서 관람 일정을 탁정환(44회) 회원의 호소(?)로 5월 11일(토)로 정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미회 회원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다.

그런데 이날은 롯데 이벤트데이로 유니폼을 나눠주는 레드데이! 여서 입장료가 평소의 2배인 무려 32,000원이나 하였다. 집행부는 예상치 못한 행사비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긴급 회의 등을 진행하여 가족들에게 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추진기로 확정하고 이왕하는 것 100명 정도 만들어 보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미래발전분과에서 23명이 참가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친목, 대외 등 각 분과 소속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을 신청해 주었다. 100석이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110석으로 예약 진행! (단체석 예약을 함에 있어 51회 김동주 야구후원회 사무국장의 도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109명의 참석자로 마감되었다.

경기 당일, 사직은 완전한 축제의 장이었다. 이벤트데이라 좌석이 매진되었고 이날 축구경기까지 있



어서 인근의 도로 양쪽 가장자리 차선을 가득 메울만큼 주차가 매우 힘들었다. 경기장 앞에서는 각종 기념품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을 즐겁게 했다. 집행부는 김밥 110줄, 통닭 65마리, 물 150개, 소주 50개, 맥주 50개, 응원도구 70개 등 분과별로 배분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원하였다. 야구장으로 입장하기 직전에 경기에 출전하는 모교출신 최준용, 정보근, 한동희, 한현희, 이주찬 롯데선수가 경기장 1층 출입구로 잠시 나와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었다. (많은 인과 속에서도 45회 최재근 동문이 수고를 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사직야구장은 완전 붉게 물들었다. 관람객들이 전부 입장 시 배포된 붉은색의 롯데 레드데이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붉은색으로 가득찬 경기장에서 박종찬(25회) 명예회장은 ‘부산의 야구가 아직 살아있네~~~’ 서승진(46회) 위원장은 ‘여



기 꼴지팀이 맞나?’ 탁정환(44회) 동문이 ‘여차하면 LG 응원하자!’ 등의 말을 내뱉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다양한 응원으로 롯데와 LG팀 모교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경기에 몰입하였다. 결과는 롯데가 1:2로 졌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응원으로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에 충분했다. 또한 경기 후 LIVE 밴드 공연과 불꽃놀이까지 더해져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안 회장은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응원상도 주고 용돈도 챙겨주는 헌신(?)을 하여 회원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명예회장 부부,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부부, 허부남(37회)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 대외협력분과 26명, 문화체육분과 14명, 미래발전분과 27명, 사회공헌분과 10명, 친목교류분과 28명

◇찬조 : 박종찬(25회) 40만원(참가자 전원 김밥 지원) 이종휘(32회) 30만원, 김대영(43회) 20만원, 안병규 100만원, 탁정환(이상 44회) 100만원(참가자 전원 통닭 지원) 조태성(45회) 구이안주류 3중세트 각 120개, 김동주(51회) 야구후원회 사무국장 단체석 예약 도움, 한재호(55회) 생수 150개, 소주 50개

K-청마회 번개모임

선배의 배려와 후배의 감동이 어우러지는 훈훈한 순간



K-청마회는 4월 27일(토) 오후 6시 박종찬(25회) K-청마회 명예회장의 주최로 사상 6번출구(54회 조중완 K-청마회 재무국장 운영)에서 번개모임을 가졌다.

박종찬 명예회장과 함께 깜짝 방문한 25회 김종현 동기회장이 30만원을 찬조해주었다. 웃는 얼굴로 친근하게 대해주어 어색함 없이 너무나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정유석(51회) K-청마회 회장의 인사와 함께 올해 새로운 신입회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신입회원 소개는 정기총회 때도 했지만,

박종찬 명예회장과 신입회원들이 대면하는 첫 자리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었고, 기존 청마회 회원들과 서로 안면을 트고 친해지기 바라는 정유석 회장의 배려로 계속해서 자리를 바꿔가며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갔다. 박 명예회장은 청마회의 의미와 가치,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올해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 기수인 58회 동기회의 김동욱 회장과 서명기 국장이 부인과 예비신부를 동행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25회 대선배들의 장난꾸러기 고교 시절 추억의 이야기와 맨땅에 사업을 일으키고 달려온 순간들의 이야기는 모임에 참석한 후배들을 감동시키고 용기와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1차 식대는 박 명예회장이, 2차 불무직타운 비용은 김지운(52회) 수석부회장이 찬조하였다.

경불회 108사찰순례 첫발을 내딛다

42명의 동문 불자 가족 참여 전남 곡성 성륜사와 태안사 참배



경남중·고 동문불자회(慶佛會-회장 33회 김법영)는 지난 5월 5일(일) 신임 집행부가 기획한 108사찰순례의 첫 행사를 가졌다. 13회 장영길 동문부터 39회 윤원욱 동문까지 총 42명의 동문 불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가하여 전남 곡성 성륜사(聖輪寺)와 태안사(泰安寺)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아침부터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8시 부산진역 협성뷔페 앞에 모여서 44인승 전세버스로 출발해서 오전 11시 10분에 성륜사에 도착하였다. 성륜사는 40년간 장좌불와 수행을 한 청화스님이 조방원 화백과 대상그룹의 임창욱 명예회장의 시주로 1990년 9월 대

웅전이 건립되면서 창건하여 그 후 20여년에 걸쳐 여러 불사가 건립된 사찰이다. 대웅전에서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듣고 단체기념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공양간으로 이동하여 산채비빔밥으로 사찰공양을 하였고 공양을 마친 참석자들은 오후 1시까지 사찰 내 주요 전각과 지정 문화재들을 둘러보며 오전 일정을 소화하였다.

빗줄기가 다소 거세지는 상황에서 1시 성륜사를 출발 오후 2시경 태안사에 도착하여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적인선사탑(보물 제273호)을 비롯 광자대사탑(보물 제274호), 능파각(전라남도 유형문화

재 제82호) 등 사찰 내 전각과 문화재들을 둘러보며 108사찰순례 일정 중 제1차 행사 2사(寺) 참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참석자 : 13회 장영길(이정숙) 21회 정영천(김문영) 24회 공문수 전문식 정영환 28회 법천 도일스님 29회 배현호(김경숙) 33회 강주태 김동환(정정옥) 김법영(김미란) 김종만(윤서현) 남택은 오항선 정영학(김미경) 지창근 35회 서석권(윤애덕) 37회 강용하 김진영(김주연) 문병오 윤태현 정기섭(김민주) 조성각(김미애) 탁낙준(이미림) 황태운(허미혜) 39회 윤원욱 금강수선회 김미경 김영숙 오화란 조영희

용마코러스 임원진 개편

용마코러스는 3월 12일(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직강화를 위한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신임 단장에 심재민(38회) 동문이 선출되었고, 부단장에 김병기 박근태(이상 39회) 동문이, 지휘자에 전상건(35회) 부지휘자에 노재훈(50회)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사무국장에 신봉준(42회) 사무차장에 문형준(44회) 재무부장에 김원철(38회) 재무차장에 김현운(58회) 파트장에 테너1 최현(44회) 테너2 안병규(44회) 베이스1 노성수(39회) 베이스2 김석훈(50회) 악보장에 이찬희(54회) 동문이 각 선출되었다. 신임 임원진들은 용마코러스가 재도약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고 단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28회 동기회, 졸업50주년 행사 알차게 가져

28회 동기회는 5월 25(토)~26(일) 일 양일간에 걸쳐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 행사는 지난 해 동기회 설문조사에서 5월 25일 당일로 치르자는 여론이 수집된 바 있었다. 이에 본부동기회(회장 박종기)는 23년 8월말 총회를 열어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광제 동기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21일에 가진 1차 위원회에서 동기간에 우애를 좀 더 오래 나누기 위해 1박2일로 일정을 늘리기로 의결했으며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여행의 풍취를 느끼게 해주는 1박2일 부산항 원나잇 크루저를 이용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본부동기회 98명(부부 37쌍)은 대중교통과 개인차량을 이용했고, 재경동기회 67명(부부 22쌍)명은 3대의 리무진버스에 분승하여 25일 오후 3시 20분에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모였다. 1백65명의 참석자들은 정성들여 만든 고급 명찰(34회 백운창 지원), 기념 크리스탈 3D문진(50회 백광선 제작), 찻상보(정인식 동기 부인 박광희 여사가 수제품 60세트 기증), 등산용 양말(김태완 동기 240세트 기증)과 행사프로그램을 지급 받고 오후 3시반 부터 『팬스타드림』호에 승선했다. 고교 졸업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동기들도 있어서 그 반가움은 너무나 컸다. 동기들끼리, 부인들끼리 수십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 꽃을 피워 승선 시간도 깜빡 잊을 정도였다. 4시 반경, 승선과 객실 배정을 받고도 저녁 7시 만찬시간 전까지 틈을 놓칠세라 맥주와 안주를 지급받아서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선상 카페 「유메」에서 들려주는 생음악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승선한 다른 승객들이 저녁 식사를 미리 마친 저녁 7시부터 동기 가족들은 푸짐한 선내 뷔페를 먹으며 6명, 8명 단위로 본부와 재경이 섞여 소맥 반주와 함께 유쾌한 담소를 나누었다. 만찬을 배불리 먹고는 광안대교 앞 바다에 정박한 「팬스타드림」호 외부 데크로 모두 올라가서 광안리 해변의 야경을 감상했다. 밤 8시 50분 부터는 수십발의 화려한 불꽃쇼를 즐기면서 춤지도 덤지도 않고 파



도 하나 없는 낭만 가득한 부산의 밤을 가슴에 가득 담았다.

드디어 밤 10시 30분, 「국민MC」인 김경진(44회) 동문의 사회로 기념식이 시작됐다. 조광제 추진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기들에 반가움을 전했고, 이어 이번 기념행사를 위해 노고를 쏟은 현직 집행부와 동호회 대표에게 공로상과 상품권을 증정했다. 이 시상식에는 동기회를 위해 봉사한 남편(동기회장, 사무국장, 동호회장)을 내조한 부인들이 수상자가 되는 흐뭇한 장면이 연출됐다.



본부동기회 박 회장은 기념사에서 “체력관리를 잘해서 10년후 60주년에도 씩씩하게 만나기를 기원”했고, 재경동기회 조재명 회장 역시 “모처럼의 만남을 축하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오랜 시간 음악에 정진했던 이인재 동기는 6곡의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며 50년 만의 만남을 축하했고 동기 가족들은 이 연주에 합창으로 화답했다.

이어진 경품추첨에 관심이 집중됐다. 팬스타크루저 측에서 1백만원 상당의 오사카 크루저 승선권, 50만원 상당의 부산항 나이트크루저 승선권을 찬조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도 50리터와 80리터 냉장고 2대를 찬조했으며, 행사추진위원회도 4백80만원에 이르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다.

모두 마흔명에 이르는 동기와 가족들이 상품을 받았는데, 특이하게도 약65%의 추첨 행운이 재경동기들에게 돌아가 명실공히 고향 방문 선물이 됐다. 밤 12시가 살짝

넘어 기념식을 마치고 삼삼오오 3층 데크 「선상포차」로 이동해서 광안리의 밤 경치와 생음악을 즐기며 낭만의 밤을 같이 했고, 일부 동기 가족들은 객실로 돌아가서 남은 얘기를 나누었다.

26일 아침 7시 50분부터 선내 조식을 하고 9시 10분부터 하선이 시작됐다. 김용진 동기가 부두로 인사를 나왔고 김만중 부부, 노영현 부부, 정윤현 부부, 이원용 동기, 김준연 동기는 개인 사정으로 먼저 헤어졌다. 나머지 동기 가족들은 버스에 분승해서 경남중학교로 이동해 기념촬영을 마치고 10시반경 경남고로 모두 집결했다.



경고 정문에서 이종휘 총동창장과 예동해 사무총장이 영접했으며, 이 총동창회장은 선배들에게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정원시설개선 상황을 브리핑하고 행사지원금 50만원을 증정했다. 모교 백영선 교장은 기념촬영을 할 수 있도록 덕형관 앞에 촬영용 단상과 대형 플래카드를 준비해줘서 그곳에 모두 앉고 서서 평생의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 주었다. 경고는 현재 교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학교 전체를 둘러보지는 못했다.

오찬을 위해 경고에서 민락동 수변공원 용마횃집(31회 김대식 경영)으로 이동했다. 2층에는 동기, 3층에는 동기 부인들이 착석해서 수변공원의 풍경은 물론, 맛있는 생선회 코스요리를 맛보았다. 점심에는 김명영, 김용원, 김지원, 조병현, 안 풍, 옥준원 동기들도 합류

했다. 3시간 여의 오찬 끝에 열끈하게 취한 흥겨운 기분을 살려 김경진 MC는 교가를 선창하고, 왕년의 응원단장 이우사 동기가 지휘하는 응원가를 소리높여 제창한 뒤 오후 3시반 아쉬운 작별 인사와 함께 이틀간의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 귀경했다.

이에 앞서 동기회는 5월 13일 경남고에 3백만원, 경남중에 2백만원의 모교발전성금을 기탁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써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고와 봉사를 쏟은 숨은 분들이 있어서 대과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김성희 사무국장의 솔선과 함께 김명보, 박재훈, 이민우 동기들이 기념품 수송, 패킹, 음료/안주 공급, 버스 이동을 선도하는 등 매끄러운 진행에 힘을 보탰다. 또한 팬스타측의 김부겸(29회) 전무는 계약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행 협조는 물론 승선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다. 이들 그림자 부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졸업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광제, 위원 박종기 김부운 엄재홍 김성희 차정인

◇공로상 : △본부동기회 동기회장 박종기, 사무국장 김성희, 산우회장 허남식, 당구회장 조광제, 테니스회장 김태완, 기우회장 이승준, 골우회장 박종기 △재경동기회 동기회장 조재명, 사무국장 차정인, 당구회장 김태영, 산우회장 김종인, 골프회장 노태욱, 영상제작팀 최봉락 감독

58회 창립총회

58회 동기회 창립총회 개최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58회가 지난 5월 10일(금) 오후 7시 총동창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연말에 있을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를 위한 동기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 동기회기 전달, 모교 배지 전달, 초대회장 인사, 내빈 축사,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기회기와 모교 배지는 총동창회에서 준비해 주었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김동욱 동



졸업20주년기념행사를 착실히 준비하고,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수가 될 터

문은 대회사에서 모교를 졸업한 지 20년이나 되어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기수가 된 것에 많은 감회가 있다면서 선배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행사준비에 도움을 준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감사사를 표하였다.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과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정유석(51회) K-청마회 회장으로부터 동기회 창립과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가 있었다.

행사 후 근처에 있는 ‘삼세관(56

회 오민일 동문 운영)’으로 이동하여 뒤풀이 만찬을 하였다. 58회 동문들은 모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하나로 많은 선배들로부터 받게 된 관심과 성원에 크게 감동하였고 총동창회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 : 강평민 김경욱 김덕한 김동욱 김영환 도일환 박찬영 서명기 이동명 최동현(이상 58회) (내빈)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 예동해(32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박정민 동래·금정지구 회장(이상 38회) 탁정환(44회) 야구

후원회 실무위원, 정유석(51회) K-청마회 회장, 정상중(52회) 경미회 사무국장, 김영빈 정준섭(이상 54회) 장지훈(55회) 강지훈 오신욱 이동준 임동섭 천두만(이상 56회) 김재겸 김주민 안상배 조상원(이상 57회) 김성수 이희동(이상 59회) 전명재(67회) 김민섭(73회)

◇찬조 : 박종찬(25회) 50만원, 최태웅(41회) 30만원, 안병규 30만원, 탁정환(이상 44회) 50만원, 김상수(45회) 30만원, 이재광(46회) 50만원, 정유석(51회) 30만원, 김지운 30만원, 정상중(이상 52회) 20만원, 우재준(53회) 10만원, 오신욱 10만원, 임동섭 10만원, 장재환(이상 56회) 30만원, 안상배 20만원, 안재영 30만원, 조상원(이상 57회) 2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경미회 30만원, K-청마회 30만원, 북부산지구동창회 20만원, 38회 동기회 30만원, 52회, 54회 각 동기회 각 20만원, 55회, 56회, 57회 각 동기회 각 30만원



덕경회 2024년 1차 정기모임 - 회원업체 견학

다양한 경험으로 역량을 키우는 CEO... 박종찬 회장 기금 확충 위해 1,500만원 쾌척

총동창회 CEO동문 모임인 덕경회(회장 25회 박종찬)는 지난 4월 29일(월) 사하구 무지개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선일물산(45회 조태성 회원 운영)을 방문하고, 이어 사하구 감천동에 위치한 명가정(38회 류중권 운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2024년 1차 정기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5시 무지개공단 내 해양바이오 블루푸드 센터에 집결하여 1시간여 간담회형식으로 덕경회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덕경회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방문하게된 주식회사 선일물산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차에 든 덕경회가 회원 업체 간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회원들의 역량이 확대되고 결속력이 강화되는 장점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덕경회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이 각자가 책임진 회사는 물론이고 CEO로써



개인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였다. 더불어 재정확충을 위한 회 기금으로 1,500만원을 쾌척하여 회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덕경회 회원이기도 한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총동창회의 중심에 있는 덕경회의 위상을 격려하며 회원들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간담회 후 회원들은 선일물산을 방문 견학하였다. 선일물산은 국내 최대의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식품 제조업체로 복잡한 생산설비를 조 대표가 오랜 시간 연구 끝

에 직접 설계 자동화하였다고 한다. 조 대표는 그동안 동창회행사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행사에 물품찬조를 많이 했었다.

업체 방문 후 일행들은 명가정으로 이동하여 회식을 하였다. 명가정은 소갈비살을 주메뉴로 한 사하구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이다. 이날 사하지구 문귀상(38회) 회장이 특별히 참석하여 덕경회 회원들의 사하구 방문을 환영해 주었다. 명가정 대표인 류 동문도 환영의 인사말을 했고 10개가 넘는 테이블에 맛갈스런 육회 한접시씩을 서비스

로 내보 훈훈함을 보냈다. 모임은 9시경 종료되었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정순길(30회) 이종휘(32회) 이동근(33회) 백운창(34회) 김재성(35회) 이 창(36회) 백기현 하순호(이상 39회) 김춘강 우영환(이상 40회) 김명철 윤종진(이상 41회) 강병규 박상순(이상 43회) 안병규 탁정환(이상 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박종호 조태성 최재근(이상 45회) 이재광 서승진(이상 46회) 신현식 정유석(이상 51회) 김민철(52회) 이원준(53회) 이재필(54회) 강문성 이동규(이상 55회) 안재영 조상원(이상 57회) 김성수(59회) △내빈 : 최재혁(36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경곤 총동창회 사무국장, 문귀상 사하지구 회장, 류중권(이상 38회) 명가정 대표 △(주)선일물산 임직원 : 윤석희(47회) 정기우(49회)

◇찬조 : 조태성(45회) 명가정 식사 165만원 상당, 선물 세트 50만원 상당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부회장 초청모임

단순한 지원이 아닌 발전적 모델을 구상하는 후원회가 될 것!



경남중·고 야구후원회(회장 22회 유재진)는 지난 5월 3일(금) 민락동 신라호텔에서 10구좌(1구좌 월 1만원 납입) 이상을 꾸준히 후원해 온 동문(부회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초청행사를 가

졌다. 이날 후원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와 앞으로 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유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원을 계속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 표시하면서 모교를 사랑하

는 마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하였다. 또한, 후원금을 단순히 야구부에 금품을 지원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하는데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야구후원회 박종찬(25회) 수석부회장은 야구후원회의 결성으로 모교야구부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유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유 회장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후원회를 이끌어 줄것을 부탁하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야구부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30명 수준인 부회장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도

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참석자들 중에서는 경고야구부를 좋아해서 음으로 후원해온 일반인들이 더러 있다면서 명예회원제를 두고 그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모임의 식대는 유 회장이 전액 부담하였다. 식사 후 가진 맥줏집에서의 주대는 박 수석부회장이 전액 부담하였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에게 모교 출신 프로야구선수 사인베트와 정신(47회·실무위원)동문이 롯데디자인츠 선수들에게 직접 받은 사인볼이 선물로 주어졌다.

◇참석자 : 유재진(22회) 박종찬(25회) 이종휘(32회) 양호진 이창(이상 36회) 조용철(38회) 경순환 하순호(이상 39회) 한수열(40회) 최태용(41회) 정용준(42회) 강병규 박상순(이상 43회) 강경호 김경진 김황 안병규 윤상훈 임정훈 탁정환(이상 44회) 김영진 정신(47회) 김동주(51회) 김민철(52회) 김상욱(53회) 장지훈(55회)

야구후원회 친선골프대회

후원회원들 노고 치하.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 다짐



야구후원회는 지난 5월 16일(목) 보라CC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쾌청한 날씨에 22회부터 55회까지 총 10개 조 4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우정을 나누었다. 이날 그

정이 되어 좋은 성적을 낸 동문들은 명예만 가져가게 되었다. 골프를 마치고 인근 유재진(22회) 회장

늘집 비용(150만원)을 박종찬(25회) 수석부회장이 부담하여 라운딩의 즐거움을 더했다. 경기결과 메달리스트는 김민철(52회) 동문에게, 신페리오우승은 서경형(38회) 동문에게, 롱기스트는 드라이브 270m를 친 정신(47회) 동문에게, 니어리스트는 샷홀에서 홀컵에 2.2m를 붙인 정유석(51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동문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상품 상패 등을 준비하는것은 안된다고 후원회 회의에서 결

자택 가든에서 저녁 식사와 유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서경형 동문은 우승하고 그냥 있을 수 없다며 후원금 1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쾌척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부러움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 : 유재진(22회) 곽두희(24회) 박광용 박종찬 안희석(이상 25회) 박종기(28회) 박봉구(29회) 박인달 이명건(이상 30회) 김종규(31회) 이종휘(32회) 이운조(33회) 오문세(35회) 이창(36회) 정기섭(37회) 서경형 한민득(이상 38회) 김규웅 서은식 경순환 하순호(이상 39회) 최태용(41회) 박상순(43회) 김황 안병규 정의석 탁정환(이상 44회) 권우일(45회) 신동준 정신(이상 47회) 권유찬(48회) 김동주 정유석(이상 51회) 김민철 김지운 한중현(이상 52회) 우재준(53회) 고지현(54회) 이동규 장지훈(이상 55회)

KN1942야구단 리그 우승을 향한 질주



KN1942야구단의 시즌 세 번째 경기(상대팀 : 오서니언즈)가 5월 19일(일) 오전 11시 30분 경남고 운동장에서 있었다.

여름 날씨에 버금가는 햇빛이 강한 점심시간 때 경기여서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되었고 더구나 팀 주력 선수 일부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른 팀원들이 백업을 잘하여 승리한 값진 경기였다.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남재울(69회) 동문이 선발 2이닝을 완벽에 가까운 130km의 묵직한 직구로 상대 선수들을 제압했고 거기다 시즌 첫 마수걸이 홈런과 3안타 4타점으로 팀에 승리를 이끌었다.

투수진의 재룡동이 강평민(58회) 동문도 2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에 중간 다리를 잘 놓아주었고, 투수진 최고참이며 팀을 이끌어 주고 있는 김재성(42회) 동문이 나머지 이닝을 책임지어 9대 7승리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이닝 때 야수들의 연속 에러로 힘겨운 투구를 해야 했지만 관록이 묻어나는 멋진 투구로 경기를 잘 마무리 지었다.

손인호(48회), 서정민(47회) 동문이 각 3타수 2안타를 치는 등 주력 타선이 적재적소에 안타를 쳐 팀이 승리하는 데 일조하였다. 더운 날씨에 수비한다고 고생은 많았지만 수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라 다시 한번 강한 멘탈을 부여잡고 우승을 위해 한 발 더 전진하는 경기였다.

이날 경기 결과로 팀은 3승 무패, 출루율 0.411 타율 0.455 홈런 3개 타점 33점의 월등한 기록으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46회 동기회 경남고 야구부 장학금 전달



46회 동기회(회장 이재광)는 4월 2일(화) 벚꽃이 만개한 경남고 교정을 찾아 전광열(44회) 감독 임의하에 2학년 포수 정문혁 선수에게 월 50만원씩 1년간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46회 동기회는 그동안 매년 300만원 상당을 후원해 왔는데 300만원으로는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올해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다.

46회 동기회 명의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45회 동기회의 지도아래 이루어진 일인데, 46회 동

기들은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것을 부담보다는 큰 보람으로 여기고 기여이 십시일반 각출하고 찬조해 왔다. 46회 동기들은 앞으로도 매년 야구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받은 정문혁 선수는 장학금 지원에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 : 서승진 신정일 이재광 정수찬 최원석

경야회 경남고 야구부 장학금 전달



지속적인 지원으로 모교 진학 관심유도

경야회 정신(47회·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회장과 서정수(52회·제이트리자산운용 대표) 부회장은 5월 9일(목) 경남고를 방문하여 야구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정 회장은 1학년 투수 박주형 학생에게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서 부회장은 1학년 내야수 박민재 학생에게 3년간 월 5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각 전

달하였다. 정 회장과 서 부회장은 다방면으로 야구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동문들이다.

신입생에게 3년간 훈련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모교에 진학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후배 선수들이 모교에 진학의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고소식

1. 학생회 주관, 교복 생활화 캠페인



경남고는 4월 8일(월) 학생들이 교복을 효과적으로 착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복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매주 월요일, 전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은 교칙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교풍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였는데, 학교 구성원 모두는 학생 주도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교복 착용에 대한 자발적 분위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기대한다.

2. 경남고 응원가 연습



경남고등학교의 응원가를 부르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재학생들은 지난 5월 2일(목), 경남고 응원가를 소리높여 부르는 기회가 있었다.

응원가 지도는 본교를 졸업한 동문 선배이자 현재 본교에서 근무 중인 두 분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진두지휘 아래 실시되었기에 재학생들에게는 선배이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응원가 연습 시간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이었다.

특히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우렁차게 부르는 응원가를 통해 재학생들은 경남고의 학교 문화를 계승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행사에서 유대감과 활기찬 응원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는 연대와 자신감을 배우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 경남고 체육한마당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남고의 전 학생들이 참여한 체육 한마당 행사가 5월 17일(금)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각 학년별로 8자 줄넘기, 줄다리기, 농구, 피구 등의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고, 선생님들과 함께한 버스킹은 학생들과 교사가 모두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았다.

이날 동창회에서 제공된 음료와 아이스크림은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쾌함을 선사했으며,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흥겨운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경남중소식

1.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심화활동 운영



4월 13일(토) 경남중 3학년 학생 6명 및 음악과 교사는 ‘나눔과 성장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부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을 관람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뮤지컬 공연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원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인성이 자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남중학교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2. 과학의 달 행사



경남중은 4월 15일(월)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 과학의 달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환경포스터 그리기, 과학 탐구 글쓰기, 투석기 만들기, 원형 날개 비행기 날리기, 튼튼 구조물 만들기, 롤링볼 만들기 등의 종목에 참여하여 개인 혹은 모둠으로 탐구 및 토론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3. 학교문화책임규약 선포식



경남중은 4월 30일(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로 이루어지는 교육 3주체가 설문을 통해 책임규약을 정하여 선언하였다.

특히, ‘학생은 타인을 신체적·정신적·언어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 보호자 및 학부모는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뢰한다. 학교는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등 각 주체별 네 가지 규약을 선언하고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기회 · 동호회

동문동정

<15회>



△천신일 = 포스텍 명예 공학박사 학위 수여

모교에도 많은 장학금을 희사하고 있는 천신일(15회·세종그룹 회장) 동문이 5월 17일 포스텍(포항공대)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는 받았다. 포스텍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가와 산업 발전을 이끌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 크게 공헌한 천 회장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포스텍은 대학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는데 천 회장은 7번째라고 한다.

천 동문은 1985년 포스텍 개교 준비 당시 포항 지역 캠퍼스 부지 6만 3000평을 무상 기증했으며 지금까지 10억 원이 넘는 현금과 주식, 각종 현물, 석조문화재를 기부하여 포스텍이 국내 최정상 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천 동문은 한국 최초의 석탄화학회사인 제철화학을 설립해 공장 국산화를 이뤘다. 기업의 이윤창출에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체육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회>



△故 권훈철 = 유작 개인전 개최
故 권훈철(20회) 동문은 5월 9일(목)부터 12일(일)까지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유작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전시명은 '아트부산에서 고 권훈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이다.

故 권 동문은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미대를 진학했으며 2004년 작고할 때까지 오직 그림에만 전념한 작가였다. 2008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유작 개인전을 가지면서 24점의 작품을 미술관에 무상기증 하기도 했다.

작고 20주년을 맞는 올해 '아트부산'을 통해 고향인 부산에서 고인의 작품을 다시 선보이게 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故 권 동문은 생전에 "내가 그리지는 그 무엇이든,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알기 시작한 세상 또는 자연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라며 "그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삶의 행복이 무엇이었는데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1990년 이탈리아에서 귀국해 작업에만 전념하다 2001~2003년 성신여자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했으며, 지난 2004년 4월 28일 타계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2점, 삼성미술문화재단(호암미술관) 1점, 서울대 미술관 3점, 예술의전당 1점, 부산시립미술관 24점, 분당 서울대병원에도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39회>



△이종운 = LG트윈스 잔류군 책임코치
이종운(39회·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동

문이 LG트윈스 유망주 육성 강화를 위해 잔류군 책임코치로 영입되었다. 지난해 롯데 퓨처스팀 사령탑을 맡은 이 동문은 시즌 중 수석코치로 자리를 옮겼고 래리 서튼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감독 대행 맡았다. 시즌 후 롯데와 재계약하지 못했지만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육성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반년도 되지 않아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

잔류군은 1군 및 2군과 또 다르다. 유망주나 부상 후 회복 중인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동문이 LG트윈스의 미래를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 452호 14,15면
'2024 총동창회 조직표' 중 기수 동기회에서
'13회 회장(공석)'은 '13회 회장 박민보'로 바로 잡습니다.

동기회 · 동호회

14회 동기회 = 정기총회 개최



만화방창한 4월 26일(금) 부산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31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사무국장 박조명 동기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먼저 간 동기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광언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기들의 협찬으로 경남고 교정에 만들어 놓은 청동의 용마상이 오늘도 변함없이 서 있고, 후배들이 그 늠름한 모습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했다. 국가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처칠의 말을 인용해 용마의 기백과 자세를 간직한 경고인은 세세연년 발전이 무궁할 것이라며 용마상 기념비석에 적힌 글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

“용마상! 우리 젊은 날 푸른 꿈을 키운 구덕의 아름다운 교정에 연년세세 이곳을 거쳐갈 후배들

에게 웅혼한 기상을 길이 일깨우기 위해 용마의 비상을 청동으로 깎아 세운다. 졸업 30년, 14회 동문들이 뜻과 힘을 모아 1990년 4월 28일”

이어 조규태 동기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유행어를 사행시로 응용하여 참석 동기들이 복창함으로써 건강에 유념하고 안락한 삶을 강조하는 축사를 하였다.

작가인 김봉춘 동기는 단편소설의 창작활동을 여생의 업으로 삼아 왔는데 작품이 완성되어 동기들에게 먼저 배포함으로써 엔도르핀이 솟고 삶이 즐겁다고 하였다.

이길미 동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업을 돌보고 등교하는 등 절치부심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반짝거리는 옆 친구들의 눈동자가 그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었다고 학창시절을 회고하였다.

특히 ‘한국조세전략연구소’의 대표세무사 신현호 동기는 월간 ‘세금박사’를 동기들에게 배부하였고, 특별기획물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규 내용을 동기들에게 주지시켜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자 자기소개 시간에서 31명 각자 과거사와 앞으로의 계획을 정감있게 말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었다. 교가제창을 끝으로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참석자 : 강주신 김관준 김광박 김봉춘 김용균 김재도 김흥관 남우준 박정남 박조명 박헌목 서부근 서상희 신현호 염상주 윤우근 이광언 이길미 이수남 이영준 이

재인 이종민 이철근 장삼식 전재수 정삼영 조규태 조경 한창수 황준성 황준하

15회 동기회 = 경부합동모임



지난 4월 26일(금) 수영구 민락수변로에 위치한 ‘청도미가횃집’에서 64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경부합동 동기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졸업 60주년 홈커밍 행사를 치루지 못했는데 이번 경부합동모임으로 오랫동안 동기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산수(傘壽)의 나이를 넘어서신 동기들은 옛 벗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50년대 까까머리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왁자지껄 온통 옛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수다 떠는 모습은 80대 노인이 아니었다.

손부흥 동기회장과 허경도 재경동기회장은 모임에 참석한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동기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동기회·동호회

내빈으로 참석한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은 행사개최를 축하하면서 60주년행사는 못했어도 70주년행사를 더 멋지게 개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의금을 전달하였고, 모교에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공사, 자율형 공립고 2.0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였다.

마침 같은 식당을 우연히 방문한 52회 동기회장 정상중을 포함한 52회 동기 8명이 15회 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찾아와 큰 절로 인사하였고 총동창회장과 15회 동기들이 너도나도 기분좋은 절값을 주는 진풍경이 벌어져 참석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재경동기들은 모임을 한 식당이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고, 식사 후에는 부산 친구들과 소규모로 어울려 근처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2차, 3차의 자리를 가지며 우의를 다졌다.

다음날 부산의 회장단이 재경동기들에게 콩나물국밥을 대접하는 것으로 행사 일정을 마쳤고, 재경동기들은 70주년 행사 때 건강하게 만날 것을 기약하며 대철한 버스를 이용 귀경하였다.

◇참석자 : (부산) 강무상 강민조 권승부 고태언 김경일 김상차 김윤기 김경길 김종태 김중광 김판열 박소남 박준철 박찬호 백승진 손부홍 손재형 안충웅 윤상준 이기준 이기철 이정부 이종명 이창일 임상택 장중호 정수방 정준수 정창환 조배현 하영수 한도근 한해수 허두영 (서울) 강부부 김기수 김송평 김중기 김창규 문옥륜 박성부 박영무 박용 박재우 박종오 박호문 배성훈 서병길 신경웅 엄기영 이덕일 이석기 이수신 이승우 정소조 조돈욱 지민웅 최광열 최태치 한진출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재미LA) 이상모

16회 동기회 = 졸업62주년 기념 경부합동 봄야유회



지난 4월 2일(화)~3일(수) 1박 2일 경주-감포로 경부합동 봄야유회를 다녀왔다.

서울 동기들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내려오고 부산에서는 부전역과 신해운대역에서 동해남부선 ITX(새마을) 열차를 타고 경주역에 도착. 렌트카로 이동하여 경주초당순두부로 유명한 '금성관' 식당 앞에서 반갑게 회동하였다. 경주역에서 금성관으로 이동 중에 노원소 동기가 준비한 기념 불펜과 동기회에서 준비한 명찰이 배부되었다. 대계장순두부, 전복해물뚝배기, 경주특막걸리로 점심을 맛나게 먹었다.

노익장을 과시하듯 오토바이로 전국 순회길에 오른 송규정 동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금일봉을 찬조하였고 목직한 굉음을 지르며 떠나는 모습으로 잠시 동기들의 부러움을 샀다. 점심식사 후 동기들은 보문단지으로 이동하여 호숫가 길을 걸으면서 끼리끼리 사진도 찍으며 벚꽃구경을 만끽했다. 석굴암으로 이동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을 떠올리며 오손도손 걷기도 했다.

석굴암 관람을 마치고 감포로 이동 경주비치케슬 펜션에 여장을 풀었다. 명찰에 방호수가 적혀있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었다.

재학시절에 한주먹했던 신현호와 이치호가 방에서 맞짱뜰 것이 우려되어 방이 따로 배정되었고 사범부속출신들은 출세한 순서대로(배정희, 김창희, 정상진, 서고명, 이맹립) 배정되는 등 골통 따로 주당따로로 재밌게 배정되어 편안함(?)과 즐거움을 더했다.

옥상에 펼쳐진 바비큐 만찬장엔 감포횃집의 모듬회 10쟁반이, 8개의 불판위에는 서울에서 준비해온 삼겹살과 가자미(16마리)가 지글지글 끓인다. 가자미는 추성곤, 삼겹살은 이맹립이 꼽아 내는데 가자미는 젓가락질이 어려워 전부 손으로 찢어먹는데 인기가 그만이다. 엄청 먹고 마셨는데 술도 남고 삼겹살도 남았다. 공부머리는 좀 처졌는지 몰라도 먹고 마시고 노는 건 부산팀이 좀 나은 것 같다.

따로 마련된 노래방장비가 가동되자 김종덕 동기가 제일 먼저 10만원을 내고 한 곡을 불렀다. 이어 강상권 동기가 '빛속의 여인'을 불러 100점을 받았다. 홍정길 동기는 '후랑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의 '마이웨이(My Way)'를 원어로 불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고명 동기가 '사랑의 트위스트' 부를 때 모두 나와 어울려서 트위스트 춤추는 걸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김창희 회장의 '울고 넘는 박달재'로 마무리되었다.

이튿날 서울에서 준비해 온 황태백반과 막걸리로 아침을 먹고난 뒤, 파도소리 들을 수 있는 해안산책로인 양남의 주상절리를 비를 피해 전망대에서만 둘러보고 불국사 관광으로 이어갔다.

훼손염려로 출입금지된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 경내로 들어가 다보탑과 석가탑을 관람했다. 계속 부슬비가 오는지라 첨성대는 보는 등 마는 등 흠여만 보고 분황사 앞에 위치한 일품양평해장국집으로 이동하여 해장국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날씨의 아쉬움을 달랬다.

경주역에서 교동경주빵 1통씩을 선물로 받고 서울팀은 관광버스로, 부산팀은 기차(KTX)로 아쉬운 작별을 했다.

◇참석자 : (서울) 공명규 김경호 김두응 김영우 김종덕 김찬문 김창희 민신웅 박상우 박영호 배정희 서수홍 성진호 손재봉 신은조 신현호 안인환 이상철 이치호 이효일 임희성 정상진 정일성 차재익 추성곤 최수웅 최윤철 허곤 (부산) 강상권 강중국 김봉구 김영부 김인국 김한선 노원소 박영수 서고명 송규정 안국정 엄주익 윤세진 이겸일 이맹립 이명수(밀양) 이명수(합천) 이양근 정우광 주기민 하주열 홍정길 황규정

16회 동기회 = 5월 정기모임



5월 3일(금) 저녁 6시 서면 사미헌 2층 특실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건배사(이무근)에서 "구구팔팔(9988)이라고 구십아홉살까지 팔팔하게 살아라는 말인데 팔팔을 2개 더하면 십육이 되니까 우리 16회를 뜻하는 숫자 아닌가베... 그러니까 우리 십육회는 계속 팔팔합시다."하고는 "십육회 팔팔하자"를 크게 외치면서 건배를 해주었다. 역시 정형외과 의사다운 건배사였다.

누군가 "요즈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김형석 교수와 가수 나훈아"라고 하자 좌석마다 나훈아 애기로 왁자지껄하기 시작한다. 나훈아가 인천공연에서 "다리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새빠지게 번 돈 다 쓰고가라"면서 2시간 25분간 총 22곡을 쏟아내며 완전한 은퇴를 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철지난 옷, 유행지난 옷, 그런 안입는 옷하나 버리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평생 몸담은 가요계를 은퇴한다니.. 와!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등 이런 저런 애기로 한동안 시간 잘 보내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팔손을 넘은 나이들인데도 고함소리가 크고 씩씩했다.

◇참석자 : 강상권 강중국 권명석 김인국 김정갑 김정균 김한선 노원소 문성환 박기용 박영수 서고명 서태복 손송방 안국정 윤세진 이겸일 이맹립 이명수(밀양) 이무근 이양근 정영일 정우광 채경일 최양주 최정일 하주열 홍정길

◇찬조 : 이무근 50만원

일육산악회 = 4월 정기산행



지난 4월 7일(일) 10시 하단~맥도~낙동강벚꽃뚝길~을숙도부산현대미술관을 둘러보는 코스로 4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오찬은 산청돼지구이로 하였다.

◇참석자 : 강상권 강양수 강중국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부부 안국정 이겸일부부 정우광 하호길 황규정

일육산악회 = 5월 정기산행



5월 19일(일) 해운대 중동역에서 만나 문텐로드(청사포공원내)~해파랑길산책로~바다전망대 코스로 5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뒤로 대마도가 보이게 단체 사진을 찍고 송정 남일횃집으로 이동하여 오찬을 하고 해산하였다.

◇참석자 : 강상권 강양수 강중국 권명석 김한선 서고명 서태복부부 안국정 이겸일 이맹립 채경일 하호길 홍

동기회 · 동호회

정길 황규정

17회 동기회 = 춘계 야유회



5월 11일(토) 부부동반으로 40명의 동기들이 서대신동 꽃마을 일대를 산행하는 야유회를 가졌다. 오전 10시에 집결하였는데 작년 가을 경주 일원 탐방 이후 만나는 반가움과 서로의 근황을 확인 하느라 왁자지껄 담소 후 인근 내원정사로 이동 사찰을 구경하였다.

17산악회(회장 송유근, 대장 하영수)의 안내로 꽃마을을 기점으로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 A, B팀으로 나누어 하이킹 정도의 가벼운 산행을 하였다. 산행 후 서대신동 소재 '금화' 일식당으로 모두 이동하여 푸짐하고 맛깔스런 코스정찬으로 회식하였다. 김준연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미국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참석한 변재성 부부, 직전 서울회장인 최홍배 부부, 마산의 이수창, 최좌삼 동기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야유회에 동행한 12명의 부인들께도 고마움의 표시가 있었다. 이어 협찬소개, 건배제의로 공식행사를 마감하였다. 나이들을 무시한 채 거나할 정도로 술잔이 오가면서 잡다한 한담을 약 2시간 이어간 뒤, 협찬품과 집행부 준비물 등을 한아름 나누어 가지고 다음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참석자 : 김대희 김준연 문석웅 박신도 박영두 박영일 변재성 신경아 윤성욱 윤수성 이정보 최홍배 하영수 (이상 부부동반) 김길호 김용남 김창운 박가식 박인사 박재구 손영문 송유근 송인문 오태식 이수창 천용광 최좌삼

◇협찬 : 변재성 10만원, 최홍배 20만원, 이수창 의령 망개떡 30상자, 하영수 고급우산 30세트

18회 동기회 = 대망의 크루즈여행



금년에 모교졸업 60주년이 되고 팔순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작년보다 추진해 오던 일본 크루즈여행을 5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롯데관광 전세선인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세레나호(11만 4500톤)로 30명의 동기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의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 가나자와를 다녀오는 일정이었다.

당초 2차 기항 예정이었던 가나자와는 심한 강풍으로 해안접근이 불가하여 남쪽으로 이동하여 예정에 없던 사세보에서 반나절 자유관광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크루즈여행이 처음인 동

기생들끼리의 이색적인 크루즈여행은 영원히 기억될 좋은 추억이었다.

선내에서 미아가 된 친구는 없었지만, 처음 타보는 대형 크루즈선의 시설구경이나 끼리끼리 어울린 친구들을 서로 찾으러 다니느라 본의 아니게 하루에 13,000보 이상 걷는 다리운동도 하였다. 먹거리가 많아 음식 귀한 줄 모르게 입호강하고 각종 이벤트나 공연 등 볼거리도 많아 눈호강도 실컷 하였다.

4박 5일의 일정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어울려, 선내의 곳곳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나 공연을 즐기다 보니 긴 항해도 별로 지루한 줄 모르게 보낼 수 있었다.

부산 국제선 여객터미널에 아침 8시경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기다리며 소식을 해결하고, 10시 반경에 하선하여 다음 만날 날까지 서로 건강하자는 인사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참석자 : 강덕용 강영호 김길제 김덕근 김만근 김병수 김사권 김용기 김정태 노성현 박건태 박수원 박순정 박영복 박종순 서부원 손천익 송유봉 안창범 오수명 우원호 이재일 임영섭 정기용 정정돈 진상영 천두갑 하영일 하진봉 한영선

20회 동기회 = 정기총회



4월 11일(목) 오후 6시 서면 동보성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2명의 동기생들이 참석하여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2024회계연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회장 허남균, 감사 윤병규, 사무국장 김세준)을 선출했다.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금년부터 동기회비를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참석자 : 강석근 강영환 김대원 김세준 류영덕 박기상 박장대 박재봉 박재인 손상수 우철성 윤병규 이실근 이종열 장병호 장상배 장춘식 최장하 표문량 표문배 허규판 허남균

24회 동기회 = 4월 정기모임



4월 24일(수) 오후 6시 미정횃집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유신 동기를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정영환 동기회 고문의 제안에 만장일치의 박수로 답하였고, 김유신 동기의 수락 인사가 있었다.

유홍석, 김도현, 한승철 동기의 노래 솜씨를 감상하고, 다음 모임은 6월 24일(월)에 갖기로 하고 모임을 마쳤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구자웅 김경남 김도현 김명

배 김유신 김인구 김인철 박태진 박해성 서정득 손세영 송순철 안명수 안형수 여철우 유홍석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정영환 조재진 주점권 최동우 태창업 한승철 황성훈

24회 산우애 = 남도탐방



24회 산우애(회장 안형수)는 23명의 회원이 4월 1일(월)~2일(화) 해남, 목포, 고흥 일대를 답사하였다.

1박 2일동안 막걸리게 최고봉 해창주조장, 영숙이네탕집, 목포 해상케이블카, 갯바위, 영란횃집, 나로우주센터, 고흥 편백림, 백상회관, 조정래 가족문학관 등 잘 알려진 남도 명소와 맛집 등을 두루 탐방하였다.

이명규 동기(전 재경동창회장)의 큰 도움으로 계열사인 고흥 썬밸리리조트의 훌륭한 시설 및 빼어난 경관 속에서 쾌적한 1박을 하였고 숙박비는 안회장이 찬조하였다.

금번 남도탐방은 최승국 고문이 쾌척한 발전 기금 덕에 호화롭게 진행되었고 특히 조재진 부회장의 철저한 사전답사로 즐거움이 더했다. 산우애는 향후 년 2회 이같은 장거리 산행 및 탐방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참석자 :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영식 김인철 김헌태 남창영 배재일 백산흠 손세영 송순철 이현우 안형수 임민호 정영환 조재진 주점권 최동우 최승국 태창업 한승철 황규선 유인환(서울 산타래 회장)

24회 산우애 = 5월 정기산행



24회 산우애는 5월 11일(토) 5월 정기 산행으로 양산 통도사 일원을 다녀 왔다. 舞風寒松길, 용피바위, 천년고찰 통도사를 둘러본 후에 신록과 울창한 소나무향을 맡으며 호젓한 산길을 거니는 즐거운 산행이었다. 당월 산행대장인 구자웅 동기가 산행코스를 기획했으며 부산-통도사 간 교통편을 제공하고 유명한 맛집 돈돌이식당에서 22명 회식비도 찬조하였다.

◇참석자 :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성득 김영식 김유신 김인구 김해룡 남창영 배재일 서정득 손세영 안형수 이현우 임민호 정영환 조재진 최동우 최승국 태창업 한승철 황성동

24회 이사빌 = 4월 정기모임

4월 17일(수) 오후 2시 남포동 허리우드 당구클럽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우승(한승철) 및 준우승(김명배)에 대한 시상

동기회 · 동호회



이어 박인호 회장의 인사와 임덕철 총무의 사회로 회의 진행이 있었다.

◇참석자 :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김장현 박인호 유홍석 임덕철 정기춘 태창업 한승철

24회 이사빌 = 5월 정기모임



5월 22일(수) 오후 2시 남포동 허리우드 당구클럽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우승(태창업) 및 준우승(박인호)에 대한 시상 이어 박인호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참석자 :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박인호 이현우 임덕철 주점권 태창업 한승철

24회 후라회 = 5월 정기모임



5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성문식당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김학주 노상우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한예식 황성동

25회 동기회 = 봄소풍



4월 25일(목) 8시 30분 서면을 출발 경남 산천군 성철스님 생가(겹외사), 함양군 상림공원, 개평마을(일두 정여창 고택), 산천군 생초 경호강 독을 둘러보는 봄소풍을 다녀왔다.

◇참석자 : 강용주 구도근 김구화 김규진 김길수 김덕우 김옥권 김유환 김종국 김종현 박광용 박종찬 박창훈 배동명 여성조 오양득 옥동훈 윤종렬 이동석 이상화 이인구 이창훈 이태근 전상태 전섭태 정동운 정윤철 제영성 조광재 최병주 최재환 하동문 황근태

◇찬조 : 김종현 송정규 각 30만원, 김익수 김진우 박세

철 박종찬 송영근 정윤철 제영성 최병주 최차환 한준석 각 10만원

25회 당구회 = 정기모임

5월 10일(금) 오후 2시 청천당구장(조방 앞)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김규진 김종현 박광용 이신화 이인구 이한식 정윤철 최병주 최차환 황철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5월 11일(토) 오륜마을~윤산~동래읍산(마안산)~북천동고분군~동래시장(동래부동헌) 코스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구화 김종국 노태호 여성조 옥동훈 이동석 이창훈 이태근 하동문 황근태

26회 동기회 = 4월 월례회



4월 26일(금) 자갈치 신동야회센터 3층 15호에서 4월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주요 안건으로 5월 26일(일) 경북 예천 회룡포에서 대동제 행사를 가지기로 결의했다.

◇참석자 : 권해국 김선일 김상현 김섭권 김종우 김지승 김택영 박만식 박재창 왕정일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 이영덕 이영학 이정민 강종연 경인수 조만석 최의수 최현(치) 허종 허진호 홍청근 홍순하

27회 동기회 = 제23차 합천 황매산 문화기행



5월 2일(목) 합천 황매산 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부부동반) 강봉호 김경진 김대용 김민수 김병용 김석운 김성주 김용섭 김주호 김지언 남용희 박갑성 박찬용 반정열 방문성 배병록 백승엽 변재국 신재욱 신한원 윤지한 이요섭 이종찬 이형복 전창민 정광모 조동구 최인성 최휴진 태기섭 한수길 허한 황주현 (싱글) 강용병 김상문 김인석 김재섭 김정희 남영복 문성기 박현호 백민호 안정규 양태종 이홍걸 조용수 조태화 추재희

◇찬조 : 김상문 100만원, 김인석 30만원, 김태우 50만원, 이홍걸 30만원, 한수길 50만원

27회 VS 28회 및 25회 간 친선바둑대회



27회 동기회는 4월 6일(토) 오후 3시 서면 롯데기원에서 28회와 친선바둑대회 행사를 가졌다.

27회(상위조) 강병훈(1급) 백승엽(2급) 김흥근(2급) 주순태(4급) (하위조) 한장호(4급) 조태화(4급) 김정희(5급) 김석운(6급), 28회(상위조) 이관선(강1) 김용섭(1급) 이승준(3급) 우건식(3급) (하위조) 김정유(4급) 이만수(4급) 김부운(4급) 김성희(4급)로 참가하였다. 1라운드는 5:3, 2라운드는 3:5로 토탈 8:8 무승부를 기록했다.



5월 18일(토) 오후 3시에는 서면 날마다기원에서 25회와 친선바둑대회를 가졌다.

25회 김우형(1급) 윤종렬(1급) 이상화(1급) 장승엽(1급) 박원규(2급) 안희석(5급), 27회 강병훈(1급) 백승엽(2급) 김흥근(2급) 김형태(4급) 주순태(4급) 한장호(4급) 각 6명씩 6개조로 동일인과 2판을 두어 3승 9패를 기록했다. 9월 경에 다시 겨뤄보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대회 종료후 서면 대야상갈비 식당에서 저녁 만찬을 가졌으며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께서 전액 부담하였다.

31회 동기회 = 봄맞이 대마도 여행(우정을 싣고 대마도로~~~)



4월 20일(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와 전날의 지진 소식이 있었지만 49명의 동기가 "우정을 싣고 대마도로~"라는 여행제목으로 출발지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7시까지 집합했다.

60대 후반의 나이이지만 초등학교 때의 소풍 가는 전날처럼 잠이 안 왔는지 다들 토끼 눈을 하고 정시에 출발장소에 도착하였다. 가이드로부터 간단한 QT가 있었고 각자 승선권을 교부받아 설렘을 안고 팬스타 쓰시마 링크호에 승선했다. 오후 일정을 위해 수면을 취하는 동기, 맥주 한잔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느덧 히타카

동기회 · 동호회

초항 여객터미널에 배가 도착하여 수속절차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49인승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에서 집행부의 간단한 인사에 이어 가이드, 기사님의 소개 후 즐거운 여행을 위한 부탁과 수고의 박수를 보냈다.

첫 일정으로 날씨가 좋으면 49km 떨어진 부산이 보이고, 광안리 불꽃 축제 때는 현지인들도 와서 본다는 리뉴얼된 한국전망대를 구경했다. 이어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 조선국역관수난비도 둘러봤다. 예약된 식당으로 이동하여 중식으로 쓰시, 우동, 튀김, 사케를 곁들여서 맛있게 먹은 후, 다시 20분 이동하여 일본의 아름다운 해변 100선에 선정된, 히타카츠의 유명한 관광지인 미우다 해변에 갔다. 해변이 작고 익숙한 느낌이라 생각보다 큰 감흥은 없었다. 대마도에 도착 후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적은 양이지만 계속 내렸으나 여행의 즐거운 기분을 꺾지는 못했다.

해수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저녁에 맥과 안주 그리고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해 벨류마트와 드럭스토어에 들린 후 숙소인 유메 민숙집으로 향했다.

숙소 도착 후 짐을 풀고 편안한 복장으로 바닷가에 위치한 운치 있는 1층 야외 만찬 장소로 모였다. 멧돼지고기 삼겹살, 회, 각종 해산물을 안주로 동기회장의 건배제외와 함께 화기애애한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식대를 제외한 주류대 전액을 회장이 통크게 부담하여 동기들로부터 환호의 박수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조식으로 일본 가정식을 먹고 한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아유모도시 자연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한참을 들어갔지만 산길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다. '센료'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반주로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현지식을 먹고 두 개의 대마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이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관교'를 직접 걸으며 건넜다. 만관교는 부산대교 같은 빨간색 철교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다리 위에서 바라본 만제키세토운하의 경치는 정말 좋았다. 이어 여객터미널로 가는 길에 1박 2일 간의 지친 몸을 위해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삼나무 숲길에 잠시 정차하여 맑은 공기로 정화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 마치 태초의 숲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객터미널 옆에 있는 면세점에 들려 모두들 가족에게 줄 선물 잔뜩 사들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실었다. 집으로 가는 즐거움은 잠시, 바다 기상이 좋지 않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높은 파도로 많은 승객이 힘들어했다. 배는 다행히 사고 없이 부산항에 입항했고 동기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해산했다.

◇참석자 : 고희호 공종열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병기 김성규 김영수 김재술 김종근 김판덕 김학현 김호성 김효연 문성일 박경수 박세환 박종규 박홍배 박희암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성오용 심재현 안병곤 안중수 오호철 이기범 이석우 이성식 이원철 이희준 장성수 장성호 장재훈 전창수 정용식 정인화 조영기 조현우 천장호 최경침 최상웅 최주홍 최해영 홍동수 황성철

33산우회 = 1000차 기념 거제도 1박 2일 여행



4월 20일(토) 산행 1000차 기념 흥포 마을회관~망산(397미터)~명사해수욕장~놀러와펜션~정글돔~중앙횃집 코스로 거제도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김동환(정정옥) 김범영(김미란) 김종만(윤서현) 김태훈(이수정) 남택은(이명진) 민병현(공미형) 박태중(김희정) 정영학(김미경) 이윤조 지창근

◇찬조 : 김태훈 1000차 기념 남 상의, 김동환 1000차 기념 현수막, 민병현 로얄샬루트 25년산 양주, 김범영 발렌타인 30, 17년산 양주 중앙횃집 점심식대

35회 울산동기회 = 4월 모임



4월 24일(수) 저녁 6시 30분 외식명가 삼산점에서 5명의 동기가 모여 4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창호 남권호 유철인 이효성 전상건

35회 사모산우회 = 울산태화강 봄꽃축제



사모산우회는 5월 19일(일) 울산태화강 봄꽃축회에 다녀왔다.

이날 김인수 동기가 일일회장이 되어 축제행사장 안내와 맛난 점심식사(손두부, 오리고기, 동동주) 장소를 제공하였다. 또한 김세정 동기가 특수카메라로 멋진 단체사진을 촬영해 주었다. 이날 기념품으로 경주빵 찰보리빵을 증정하였다.

◇참석자 : 김세정(최금희) 김인수(정귀란/울산) 김종태(박재임) 류인수(김미호) 서석권(윤애덕) 손경호(울산) 송호성(김예담/광양) 신동해 안한국(신명주) 유병로 이창렬 정명섭(안윤정) 하승훈 황원식(창원)

36회 산악회 = 번개 및 정기 모임



4월 7일(일) 서부산 유통지구~낙동강 벚꽃길~구포시장을 트레킹하는 번개산행을 가졌다. 5월 12일(일)에는 회동동 버스정류장에서 선동 상현마을을 둘러보는 정기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4월 7일) 박상만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전현우 정병기 최상도 (5월 12일) 곽상호 김경찬 김수용 김종일 안재익 윤경준 이성호 이필이 이학수 전현우 정병기 최상도

36회 당구회(Billy36) = 정기 모임



4월 20일(토) 오후 2시 수영유토피아 당구장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후로 정기모임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5월 18일(토)에는 같은 당구장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는데 뒤풀이에 참석한 안재익 동기가 뒤풀이 식대를 전액 찬조했다.

◇참석자 : (4월 20일) 김동기 김동일 김재영 김한교 맹경태 박형출 손진규 우한주 윤경준 이성호 이필이 이학수 정병기 황상철 (5월 18일) 김동기 김동일 김재영 김한교 맹경태 박형출 손진규 안재익 우한주 윤경준 이성호 이필이 이학수 장상욱 전현우 정병기 황상철

36회 골프회(KN36 GOLF) = 정기 모임



4월 4일(목) 베이사이드CC에서 4월 정기라운딩을 가졌다. 핸디캡을 고려한 스트로크방식으로 시상하였는데 1위에 78타를 친 정홍원 동기가(핸디 81)가 싱글메달리스트까지 차지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았다. 2위에는 91타를 친 김규선 동기가(핸디 92)가, 3위에는 87타를 친 윤경준 동기가(핸디 84)에게 돌아갔다. 이날 신입회원으로 김호욱 동기가 참석해 99타를 기록했다.

5월 2일(목)에는 같은 CC에서 5월 정기라운딩을 가졌다. 같은 방식으로 시상하였는데 1위에 87타를 친 안재익 동기가(핸디 92)가, 2위에는 76타를 친 정홍원 동기가. 3위에는 83타를 친 김현철 동기가(핸디 83)가 차지했다. 이날 메달리스트는 정홍원 동기가 차지했다.

◇참석자 : (4월 4일) 김규선 김도균 김병주 김상백 김용진 김종백 김호욱 안재익 윤경준 전현우 정홍원 허성진 (5월 2일) 김병주 김상백 김용진 김종백 김현철 남원우(게스트) 안재익 윤경준 전현우 정병기 정홍원 허성진

동기회·동호회

40회 = 재경동기회 회장 이·취임식



4월 19일(금) 저녁 서울 명동에 위치한 장수갈비집 명동본가에서 개최된 재경동기회 회장 이·취임식에 부산에서 안성호 동기회장, 한수열 부회장, 노인철 사무차장이 다녀왔다. 최근 북콘서트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철학박사 최순영 동기와 이날 이임하는 지승렬 재경동기회 회장(롯데건설 상무)이 서울역까지 마중해 주었다. 재경동기회가 오랜만에 개최된 탓인지 반가운 친구들의 답소가 계속 이어졌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김승환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지 회장은 인사말에서 멀리 부산에서 집행부 동기들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단 말과 함께 3년간 재경동기회장직을 큰 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기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며 모든 동기들에게 고맙다는 짧고 명쾌한 이임사로 동기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광(7반) 신임회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속에서 많이 참석해 준 동기들에게 일일이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또한 2년밖에 남지 않은 40주년 홈커밍데이까지 최대한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등으로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본부 동기회와 함께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취임사로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에서 올라간 안성호 동기회장은 축사에 앞서 본부 동기회 대표로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안 회장은 동기회에 부산의 덕형리그에서 지난 해 우승한 40(A)팀과 더불어 40(B)팀이 있다면서 5월 25일(토) 40(A) VS 40(B) 빅매치가 있어 이날 동기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재경동기회도 시간이 되면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사공회(골프)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재경동기회 모임이라 모르는 동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반갑고 환대해 준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40회 포에버”란 멋진 건배사로 축사를 마무리 했다.

신임집행부에 최하용(11반) 동기가 사무국장, 우병렬(11반) 동기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내빈으로 참석한 한효용(30회) 재경동창회 총무이사는 재경동창회보다 활발한 40회 재경동기회의 단합된 분위기가 부럽다면서 재경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만세운동(한달에 만원 회비기금)에 40회 재경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주최측 농간(?) 수준으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 한효용 선배님과 부산에서 올라간 일행들 모두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당첨시켰다.

오늘의 대상으로 준비된 로얄 살루트 1병이 21년 산이라서 행운권 번호 21번인 김종철(4반) 동기가 당첨되었다. 행운권 추첨후에는 자리를 옮겨 동기들의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기들과 밤을 세워 어울

려도 좋았겠지만 다들 바쁜 탓에 모임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헤어져야만 했다. 부산 일행은 서울역으로 이동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참석자 : 한효용(30회) 재경동창회 총무이사, 권귀동(12반) 김병곤(11반) 김종철(4반) 노우탁(12반) 반광호(4반) 박대영(9반) 박성후(12반) 박훈재(6반) 배상복(2반) 성태진(7반) 안용태(2반) 양철희(12반) 오주익(8반) 우병렬(10반) 이기욱(10반) 이현호(11반) 최순영(11반) 한승엽(10반) 지승렬(11반) 김승환(1반) 이광(7반) 최하용(11반)안성호(4반) 노인철(3반) 한수열(12반)

◇찬조 : 신인철(22회) 맥주 1박스, 재경동창회 10만원, 이광 식대전액, 지승렬 스타벅스 10만원 상품권 4매, 김승환 21년산 로얄 살루트 1병, 우병렬 타이틀 리스트 골프공 4박스, 본부동기회 영업비밀

41회 동기회 = 5월 정기모임



41회 동기회가 5월 16일(목) 사상에 위치한 해운대연가(이양걸 동기 운영)에서 진행되었다.

성찬기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친선 골프대회를 마치고 조금 늦게 도착한 최태용(영준) 동기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동기회가 진행되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2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하고 맞이한 첫 동기 모임이라 설렌다. 2년 동안의 모토는 즐거운 동기회. 찾고 싶은 동기회. 스트레스 푸는 동기회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삼았다. 총동창회에서도 41회가 부끄럽지 않게 앞서서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참석한 동기들 한명 한명 일어나서 인사를 하며 근황과 서로의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특히 광성국 동기는 과거 재경동기회장을 맡으며 동기회에 출선수범한 동기로 이번엔 멀리 울산에서 참석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기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기 위해 동기회에 꼭 참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동기회의 안건으로는 1. 5월 27일 경남중·고 용마골프대회 참가의 건, 2. 동기회장배 당구대회 개최의 건, 3. 동호회 활동 활성화 방안의 건, 4. 9월 동기 족구대회 개최의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의견 및 제의가 있었다.

동기회장배 당구대회는 7월에 진행되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일정 및 장소를 선정하여 공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 인원의 50% 이상 동기회비 납부 시에 동기회에서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동기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으며 오늘도 역시 동기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1회 동기회만의 게임, 빙고게임이었다. 가장 먼저 빙고를 완성한 이수기 동기에게 백

화점상품권(10만원)이 증정되었으며 광성국, 박동언, 김인수B, 조용락, 이주하, 성찬기 동기가 건어물세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후 교가제창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동기회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헤어짐이 아쉬워 많은 동기들이 인근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2차를 진행하였으며 2차 전액 이양걸 동기가 찬조하였다.

◇참석자 : 강석희 광성국 김동원 김득수 김영철 김인수A 김인수B 류지섭 박동언 박익현 성찬기 이수기 이양걸 이종우 이주하 전삼록 조용락 최태용(영준) 한창희 허치희 황정후 (2차 참석) 강병오

◇찬조 : 김영철 10만원(백화점 상품권), 최태용(영준) 건어물세트 6개(30만원)

41골프회 = 필드 모임



41골프회는 2024년 네번째 오프라인 모임으로 4월 12일(금요일) 진해 용원에 위치한 노을이 아름다운 골프장인 아라미르CC에서 3부 야간 골프로 치러졌다.

멀리 경북 월성에서 참석한 안덕용 동기를 비롯한 8명의 동기가 2개조로 라운딩을 진행하였다. 최태용 회장은 당초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

김득수 동기의 제안에 따라 “사다리타기”를 통해 1조 : 김득수 전삼록 성찬기 박정호, 2조 : 안덕용 이정삼 김동원 강석희로 구성하였다.

대회결과, 김동원 동기가 88타로 메달리스트에 올랐고, 김득수 동기가 행운상을, 드라이브 240m를 친 박정호 동기가 롱기스트에, 샷홀에서 홀컵에 1m를 붙인 강석희 동기가 니어리스트에, 이정삼 동기가 734점으로 신페리오 1등을 차지했다. 전삼록, 성찬기, 안덕용 동기가 우정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라운딩을 하지 못한 최 회장이 캐디피를 모두 지원했다.

42회 동기회 = 정기모임



4월 19일(금) 중앙동 ‘삼락정’에서 23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강인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기회 발전을 위한 동기들의 협조를 당부했고 기별야구 우승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양정규 사무국장에 의해 1사분기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강 회장의 건배사가 있었고, 김상현 동기의 야구배트 증정식과 직전 회장인

동기회 · 동호회

곽창우 고문의 건배 제의가 있었다.

◇**참석자** : 김원주 강인호 박동식 김현오 곽창우 김영태 문지성 정재익 유경상 안정일 고장석 이영도 윤영기 심철보 정유철 이재경 김진호 김상현 안용진 양정규 (2차 참석)성창욱 정준오

42회 산악회 = 봉래산 산행



5월 11일(토) 봉래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후 오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참석자들에게 산악회 선물로 티타늄컵 2개씩이 증정되었다.

박동식 고문이 식대 전액 부담하였으며, 2차 폼장어집 식대는 2차에 합류한 문지성 부회장이 찬조하였다.

◇**참석자** : 고장석 김현오 문지성 박동식 안정일 유경상 정용중

43회 동기회 = 4월 정기모임



4월 13일(토) 경남고~꽃마을~승학산 코스로 산행 후 오후 5시 하단 만족족발집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류법권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최영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모임이 진행되었다.

소모임 활성화(골프회 4월 15일, 산악회 5월 11일, 당구회 5월 18일)와 6월 정기모임(1박 2일 또는 재경동기회와 연합모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세한 일정은 집행부에서 정하여 추후 공지하기로 하였다.

◇**참석자** : 강병규 김대영 김대훈 김수민 류법권 박승삼 방성수 서원택 심문섭 오일남 윤성진 이승학 이진배 전순표 정창석 경효범 최동환 최영동 (2차)장병철 (3차)이학노

◇**찬조** : 김대훈 고압산소이용권 90만원 상당, 김영희 수건세트 50장, 마성준 대개2kg세트 3개, 장병철 치약 칫솔세트 30개, 최동환 스타벅스 커피세트 6개, 최영동 스팸복합세트 3개, 익명 동기 강력야양강장제 20정

43회 동기회 = 임원모임

5월 23일(수) 오후 3시 사전모임으로 다대수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다대포 활어센터로 이동 정기모임 계획의 건으로 임원모임을 가졌다. 6월 정기모임은 6월 8일 남포양곱창에서, 8월 정기모임은 날짜는 정하지 않고 사직야구장에서, 12



월 정기모임 및 송년회는 12월 7일 서면 정준호 뷔페에서 부부동반으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참석자** : 회장 류법권, 부회장 김대훈, 고문 김대영, 고문 이진배, 당구회장 박승삼, 산악회장 서원택, 골프회장 김동현, 사무국장 최영동

45회 동기회 = 4월 정기모임



4월 19일(금) 오후 6시 보수동 동화반점에서 2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창원에서 매달 참석하는 이광석 동기가 이날도 먼 길 마다않고 참석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바빴다는 김성기 동기도 업무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모임에 참석했다.

한 달 만에 봤는데도 동기들은 오래 보고 싶다고 3차까지 달리는 넘치는 우정의 저력(?)을 과시했다.

6월 모임은 재경 친구들과 조인트 모임을 추진 중이다.

◇**참석자** : 구자삼 권우일 김동욱 김성기 김성준 김영주 김인중 김정환 김종현 박진수 손창오 신상호 안형오 오문찬 이광석 이동희 이상구 이성근 임석범 장성익 정행덕 조청래 조태성 최재근 최지우

45회 산악회 = 첫 산행



4월 14일(일) 45회 동기들로 구성된 '미키 마운틴 산악회(가칭)'는 백양산으로 첫 산행을 다녀왔다.

산악회장에 손창오 동기가, 산행대장에 김정한 동기가, 후미대장에 조청래 동기가, 범륜산행대장에 신상호 동기가 추대되어, 이날 산행에는 구자삼 김대영 김영주 김종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조태성 동기가 참석하였다.

최고의 동기사랑을 자랑하는 45회답게 등산 후

산악회장이 식대 전액을 찬조하였다. 산행대장이 참석자 전원에게 과일세트를 찬조하였고, 범륜산행 대장이 열음 막걸리를 찬조하였다. 동기들이 준비해 온 김밥 등도 정말 맛있어 첫 산행은 풍성하게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두 달에 한번 산행을 할 예정이고, 동기들의 많은 참석을 기원하였다.

45회 동기회 = 5월 정기모임



5월 17일(금) 하단 만포장횃집(39회 이승현 동문 운영)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가정의 달인 5월이라서 그런지 참석이 조금 저조하였다. 그러나 최강 동기 사랑을 자랑하는 45회 답게 12명이나 모였다.

일이 있어 참석 못한 오문찬 동기는 빙모상때 고맙다고 모임 통장으로 30만원 찬조해 주었고, 멀리 서울에서 비모사몽으로 내려온 김찬호 동기, 가게 마치고 동기 얼굴 보고 싶다고 늦게 온 황귀웅 동기 등 매달 모여서 봐도 정겨운 얼굴들이다.

◇**참석자** : 구자삼 김상수 김중현 김찬호 박진수 신태호 이광석 이동희 임석범 정행덕 조태성 (2차 참석) 황귀웅 김덕호(49회)

46회 동기회 = 4월 정기모임 및 야유회



4월 13일(토)~14일(일) 1박 2일간 함양 지리산 롯지펜션으로 4월 정기모임 겸 야유회를 다녀왔다. 온 세상이 연두로 물들고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화창한 4월의 토요일 오후 동기들은 지리산 롯지펜션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롯지펜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우리 46회만의 아지트로 세 번째 방문이다. 펜션 앞 잔디밭은 축구를 해도 될 정도의 크기로 확 트인 광경이 사회에 찌들린 동기들의 피로감을 풀어 주기엔 최상의 장소다. 오후 5시! 햇살이 아직 남아 있을 시간, 성격 급한 친구들은 한가득 신고 온 짐을 풀어놓고 만찬을 위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권진근 동기가 준

동기회 · 동호회

비한 지리산 흑돼지가 곱히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리산에서 동기들은 음주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취기가 서서히 올라올 즈음 이재광 동기회장이 준비한 자갈치표 국산 꼼장어볶음이 준비된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피곤한 동기들은 하나둘씩 잠자리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남은 친구들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술에 한이 맺힌 양 장장 11시간 동안 술독에 빠져 이야기 꽃을 피웠다.

항상 동기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는 이재광 회장, 지리산흑돼지와 펜션을 미리 예약해 준 권진근 동기, 먼 거리를 마다하고 서울서 장거리운전을 하고 내려온 정대수 동기, 김규태 가족, 권성기가족, 김대욱가족 그리고 우리 영원한 46회 친구들이 있었다.

다음 모임 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 주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46회의 2024년 야유회는 막을 내렸다.

◇**참석자** : 권성기 권진근 권태운 김규태 김대욱 김부규 김태준 김희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양수성 윤성곤 이재광 정대수 정수찬 홍이준 외 가족 6명

◇**찬조** : 김상수(45회) 100만원, 권용진 30만원, 조창현 100만원

52회 동기회 = 경남고 52회 동기회장배 제1회 골프대회



4월 26일(금) 겨우내 버텼던 골프장의 갈색잔디가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봄날.. ‘경남고 52회 동기회장배 제1회 골프대회’가 부산지역 명문구장인 에이원CC에서 열렸다.

골프대회 전부터 관심을 갖고 찬조해 준 여러 동기들 덕분에 대회 참가자들은 입장시 각종 기념품을 받고 클럽하우스 앞에 모였다. 허근영 동기부회장이 선물한 경기단체복으로 환복 후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조편성은 A조에 김민철 박재용 서정수 최문성, B조에 김민수 정상중 허근영, C조에 김지운 백선명 이정민 한중현 동기로 편성되었고, 정상중 동기회장의 티샷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를 마친 후 1차 회식장소로 이동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15회 대선배님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곳에 내빈으로 참석한 이종휘(32회) 총동창회장의 안내로 선배님들앞에 나란히 줄을 써 큰 절로 인사를 드렸다. 감사하게도 절값을 두둑히 받았다.

예약된 자리로 돌아와 대회 시상식과 더불어 즐거운 회식시간을 가졌다.

메달리스트 : 김민철(78타), 트로피/웨스틴조선수

박권, 신페리오 우승 : 서정수(73.2타), 트로피/아르피나숙박권, 신페리오 준우승 : 박재용(73.6타), 52웨지, 니어리스트 : 김민철 8m, 상품권 10만원, 관음상(최다 보기) : 최문성 8개, 상품권 10만원, 52상 오리(최다 더블) : 정상중 9개, 상품권 10만원, 어년상(최다 양파) : 허근영 7개, 상품권 10만원, 천만다행상(뒤에서 2등) : 이정민 119타, 상품권 1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골프회 가입자 중 선착순 5명에게 대회 기념품을, 다음 달 정기모임(5월 25일) 참가자 중 선착순 25명에게 동기골프회 각인 머니클립을 선물할 예정이다.

54회 동기회 = 5월 정기모임

5월 17일(금) 저녁 6시 30분 서면 EU피자(59회 이희동 동문 운영)에서 5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불금의 서면거리를 40대 중반의 아저씨 3명이 모여 전혀 주눅들지 않고 피자과 파스타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1차 & 2차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노애락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귀가하였다.

◇**참석자** : 고지현 이동하 이재진

55회 동기회 = 상반기 정기총회



4월 19일(금) 저녁 7시 사상구 소재 ‘호호돈가(한재호 동기 운영)’에서 상반기 정기총회를 가졌다. 24년도 사업 계획 및 행사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이대호 동기 등 55회 수퍼스타들이 총출동하는 55회 동기단독가를 가족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상 참석하진 못했지만 김태현 동기가 윈플렉스 잇몸치약 20세트, 김현달 동기가 BT콜라겐 20세트를 찬조해 주었다.

호호돈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6번출구(54회 조중완 동문 운영)’로 자리를 옮겨 모임을 이어갔으며 2차 식대는 강문성 동기회장이 전액 찬조하였다.

◇**참석자** : 강문성 박기흥 박승호 신동현 안진영 윤승환(8반) 이동현 이영보 이향림 장현준 전민기 조중호 한재호 허준 황시우

56회 동기회 = 4월 정기총회

4월 20일(토) 오전 11시 가야 냉수탕가든에서 4월 정기총회 모임을 가졌다.

정기총회 시작 전에 족구 경기를 먼저 진행했다. 아침 일찍부터 모인 동기들은 네 명씩 팀을 이뤄 경기를 펼쳤다. 김정훈 부회장이 기획한 이번 족구는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규칙이 적용되어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다. 모두가 족구를 못한다고 했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승리한 팀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기에 비가 와도 몸을 사리지 않는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우승팀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준우승팀에게는 5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준우승팀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질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참석하고 드디어 총회를 시작한다. 배가 많이 고플꺼라 식사를 하면서 총회를 하였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들을 위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볼 수 있게 했고, 총회 당일에는 경남고등학교의 이마트배 고교야구 4강전 경기가 있어 함께 응원했다. 동기인 류은재 코치에게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훈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서울에 있는 김대남 재경회장도 출장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고 인사말을 보내주어 총회때 동기들에게 전달하였다. 텐퍼센트 장사로 인해 총회 이후 늦게 참석한 장재환 고문도 동기들에게 인사말을 전달하였다. 항상 멀리서 물심양면 신경써주는 김대남 재경회장 그리고 개인사업에 장사까지 하느라 쉬지도 못하는데 동기회는 먼저 챙겨주는 장재환 고문 항상 고맙다. 이날 동기회에 처음 참석한 이상오 친구의 인사말과 오랜만에 찾아온 정지현 친구도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강지훈 회장이 선물도 증정했다. 오신욱 동기의 생일이 정기총회 날이어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케이크는 오신욱 친구를 꼭 닮은 푸바오 케이크로 특별히 준비됐다.

교가제창을 끝으로 총회 1부행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1차 장소에서 계속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이어나갔다.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는데 주사위 다섯 개를 굴려 낮은 숫자 순으로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1등 상품인 남성용 수제 가방은 김재은 친구에게 돌아갔고, 2등 상품인 10만원 외식상품권을 받은 이준희 친구는 매번 상위권 상품을 받아 친구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샀다.

경품추첨 후 2차 장소 이동 전에 단체사진을 찍고 근처 타키온으로 자리를 옮겼다. 2차 때 장재환, 석동호 동기가 3차 때 김병욱, 김지수 동기가 합류하였다.

◇**참석자** : 강동현 강지훈 김경후 김기훈 김병욱 김선철 김경훈 김지수 김재은 남용수 박명률 석동호 손정현 오신욱 이동훈 이준희 이상오 임동섭 임윤섭 장재환 정지현 천두만 최근식

◇**찬조** : 이동훈 50만원, 강지훈 20만원, 천두만 수제 남성용 가방1개, 임동섭 외식상품권 10만원 + 락토픽 유산균 4통

6-3호 연재

“노블레즈 오블리주”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CEO 모임 덕경회


(주)금화스틸



덕경회 : 이사(대외협력)
회 사 : 회 장
E-mail : sy2391@naver.com
 □ 강주물 주조업
 □ 밸브, 인코넬, 모넬, 듀프렉스, 주조
 □ 제조, 스텐레스, 밸브, 원자력
 강서구 녹산산단 17로
78번길 16 (송정동)

허부남(37회)

(주)삼성스틸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jh7741@hanmail.net
 □ 비닐하우스 제작 / 시공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8번길 94-9

정재형(38회)


(주)조양메탈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sales@joyangmetal.com
 □ 주강, 스텐레스강, 합금강
 □ 특수강 주조제조
 경남 김해시 잔례면 고모로
324번길 193

조용철(38회)


(주)초량본가어묵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back0138@naver.com
 □ 어묵 제조업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16

백기현(39회)

(주)디디에스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peterhah@ddskorea.kr
 □ 마그네틱, 광학매체 제조
 사상구 백양대로 562-3
(감전동)

하순호(39회)


법률사무소 유석



덕경회 : 고문변호사
회 사 : 변호사
E-mail : oisocwl@hanmail.net
 □ 국내외 법률서비스
 연제구 법원북로 86
(만해빌딩 7층)

이철원(39회)

파워펌프 주식회사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gspumps@powerpum.com
 □ 생활용, 산업용 펌프 제조 판매
 강서구 미음산단 4로 62번길 12

김춘강(40회)


(주)태흥이기공업사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thbaekma@hanmail.net
 □ 농기계류 제조 및 판매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57

우영환(40회)

신우회계법인



덕경회 : 감 사
회 사 : 전무이사
E-mail : imtycpa@swac.co.kr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402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임태영(40회)


(주)고이꺼시스템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 표
E-mail : ykik12@naver.com
 □ 포터블 및 가스 프라즈마 레이저
 □ 절단기 전문업체
 사상구 과감로 37
산업용품 유통상가 13동 110호

김영철(41회)


(주)에스디텍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jijoon@sdtecelc.com
 □ 전자부품 제조
 부산진구 신천대로 193-1

윤종진(41회)

(주)청담아이앤씨



덕경회 : 회 원
회 사 : 대표이사
E-mail : chd5567@naver.com
 □ 시설물관리, 건물위생관리
 □ 청소용품유통, 경비·미화
 □ 방역·준공
 남구 황령대로 319번 나길 57, 1층

황정후(41회)

덕경회 회원 (총67명)
 송규정(16), 유재진(22), 박종진(25), 김익수(25), 김진철(25), 박상호(26), 김대욱(29), 정순길(30), 윤인태(30), 박경수(31), 박용현(31), 박종호(31), 백영태(32), 이종휘(32), 박명진(33), 이동근(33), 황기문(34), 백은창(34), 박정주(34), 김재성(35), 장인화(35), 정운성(35), 김규선(36), 양호진(36), 이 창(36), 허부남(37), 정재형(38), 조용철(38), 백기현(39), 하순호(39), 이철원(39), 김춘강(40), 우영환(40), 임태영(40), 김영철(41), 윤종진(41), 황정후(41), 강병규(43), 박상순(43), 안병규(44), 탁정환(44), 권우일(45), 구자삼(45), 김상수(45), 조태성(45), 최상배(45), 최재근(45), 박종호(45), 이재광(46), 서승진(46), 정 신(47), 구원모(50), 백광선(50), 이재등(50), 정재우(50), 신현식(51), 정유석(51), 김민철(52), 이원준(53), 김문건(53), 이재필(54), 조종원(54), 강문성(55), 이동규(55), 안재영(57), 조상원(57), 김성수(59)